



세계의 대학 입학 제도

* 대학 입시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자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제도로써,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 기록부상의 성적과 기타 요소를 바탕으로 선발**하고 있다.

[자료출처: 위키백과]

*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 ✓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
- ✓ 고교 내신에서 사회 · 과학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기재
- ✓ 장기적으로 수능 수학 · 사회 · 과학, 내신 사교육 수요 경감 기대

[자료출처: 교육부 블로그 보도자료, 2023.12.27.]

* 2023 OECD 교육 성과

• 고등학교 이수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5-64세는 53%로 OECD 평균(40%)보다 높고, 25-34세는 70%로 OECD 평균(47%)을 크게 상회하여 가장 높음.

(단위: %, %p)

기준연도	구분	만 25~64세	만 25~34세
2022	한국 (변화)	52.8 (1.1)	69.9 (0.3)
	OECD	40.4	47.2
2021	한국	51.7	69.3
	OECD	41.1	46.9

*전문학사, 학사 및 석사 이상 모두 포함

[자료출처: 한눈에 보는 교육 2023 주요 내용,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원문“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23.9)

* 나라별 대학 입학시험 및 전형

독일	아비투어, NC(Numerus Clausus)
프랑스	바칼로레아, 파르쿠르쉽
영국	GCSE, Six From, A Level 등
호주	HSC, ATAR

미국	Early Action, Early Decision 등
핀란드	Ylioppilastutkinto, Valintakokeet
일본	일반·학교추천형·종합형 선발
뉴질랜드	NCEA



독일의 대학 입학 제도

독일 대학 입학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김나지움 졸업 학생이라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학능력을 갖췄다고 여기는 것이다. 김나지움의 졸업 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통과하면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데 입학 정원 제한이 없는 학과와 정원 제한이 있는 학과(Numerus Clausus, 이하 NC)가 있다. 주 정부와 대학이 대학 입학 행정 플랫폼인 호크슐슈타르트데(hochschulstart.de)를 운영하여 예비 대학생들의 등록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법률, 경제,
사회 및 사회과학



45,9 %

수학, 자연과학



33,6 %

공학, 과학



30,0 %

언어학, 문화학



23,4 %

[그림] 과목별 제한된 학과 비율(출처: WS 2023/24)



미국의 대학 입학 제도

미국 대학 입학 제도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를 비롯하여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학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 전형 또한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좋다.

대표적인 5가지 전형에는 얼리 액션(EA),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SCEA), 얼리 디시전(ED), 레귤러 디시전(RD), 롤링 어드미션(RA)이 있다.

<표0> 미국 대학 입시 전형

전형 항목	수시			정시	상시
	EA	SCEA	ED	RD	RA
하나의 학교에만 지원해야 하는가?	×	○	○	×	×
합격하면 무조건 해당 학교로 입학해야 하는가?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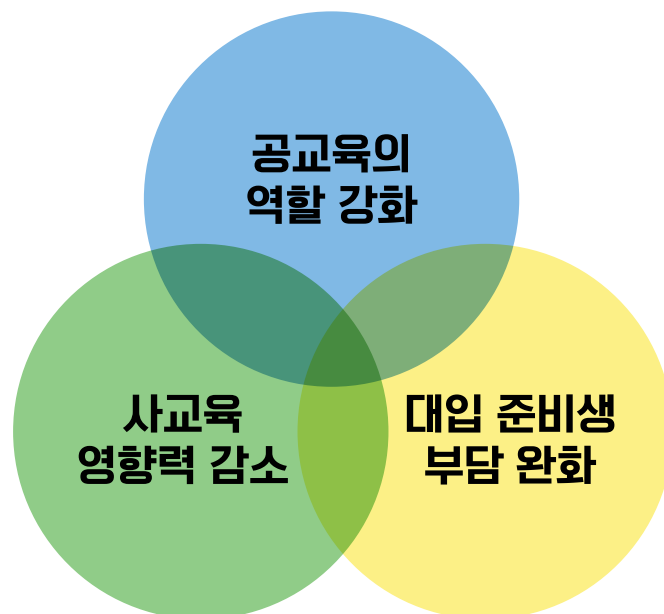


핀란드의 대학 입학 제도

핀란드의 대학 입시 제도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 교육 당국은 2020년에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핀란드는 대학별로 진행되던 대학 본고사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나라의 수능과 유사한 대학입학 자격시험의 비중을 높였다.

구분	2016	2020 변경 방향
대입 자격 시험	15%	50% 이상
대입자격시험 및 대학본고사	49%	폐지
대학본고사	34%	50% 미만
기타	2%	유지

이러한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은 ‘사교육의 영향력 감소’, ‘공교육의 역할 증대’, ‘학생 부담 감소’라는 **대입 제도 변화의 주요한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핀란드 교육이 현재의 높은 입시 경쟁률과 교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국의 대학 입학 제도

1. 영국의 중등교육과 대학 입시

- 중등 11학년에 치르는 중등교육 졸업자격시험인 GCSE 시험 점수가 대학 입시에 활용됨
- 후기 중등교육 과정인 Sixth Form(2년) 과정 동안 A Level 시험을 준비함
- Sixth Form 과정의 교사가 정하는 A Level 예상 점수로 대학에 선지원함

2. 영국의 대학 입학 전형

[2024년 입학 영국 대학 입학 전형 일정]

구분	일자
대학 지원서 제출 시작	2023년 9월 5일
조기 지원 마감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의과대, 치의과대, 수의대 등)	2023년 10월 15일
위 학교 외 대학 및 학과 지원 마감	2024년 1월 31일
추가 지원(Extra Choices)	2024년 2월 28일~7월 4일
클리어링(Clearing) 지원	2024년 7월 5일~10월 21일
A Level 시험 결과 발표	2024년 8월 15일

- 선지원 후시험 제도임
- 대학은 지원서,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 또는 지원 철회를 결정하고 학생도 지원 철회를 할 수 있음
- 클리어링 전형: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입학 조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함

3. 영국의 대학 입학 시험의 종류

- A Level -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함
- Scottish Highers, Advanced Highers - 스코틀랜드 지역 시험
- B-TEC- 실용기반 직업관련 자격시험으로 A Level 점수와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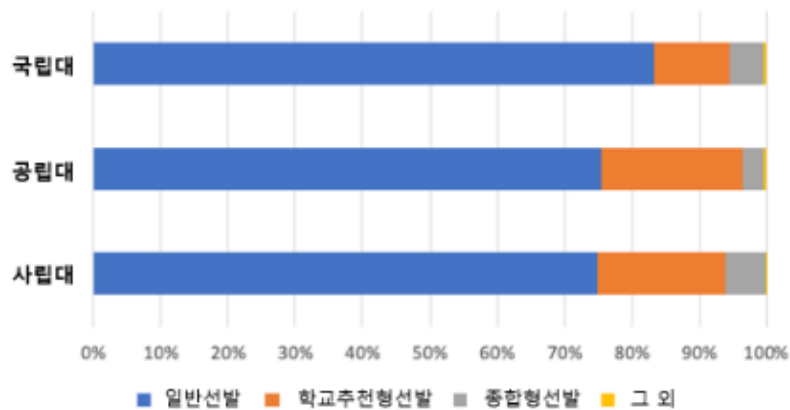
4. 영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점

- 비판점: 예상 점수의 문제점과 지역별, 계층별 차이에 따른 점수 격차
- 정부의 노력: Clearing 전형, Contextual Offers, A Level 시험 개혁



일본의 대학 입시 제도

2021년도 합격자 입시 형태별 비율



2021년도 국공사립대학 입학생 선발 현황(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1) 일반 선발

일반 선발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대학 입학 선발 방법이며, 수험생이 대학을 자유롭게 선택해 공통 테스트 및 대학별 개별 시험 응시에 따른 결과로 합격이 결정된다.

(2) 학교추천형 선발

학교추천형 선발은 크게 '지정교 추천 입시'와 '공모 추천 입시',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지정교 추천 입시'는 원서를 제출한 고등학교 학생 중 해당 대학이 학생을 지정하여 선발하는 형태이며 현역 고등학생만 원서 접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지정교 추천 입시의 경우 추천을 받기만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해당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만, 합격자는 해당 대학에 반드시 입학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지정교 추천 입시는 사립대학이 주를 이루며 공립대학 중에도 실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립대학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공모 추천 입시'는 대학의 원서 접수 조건을 충족한 수험생 중 출신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역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모집 정원이 비교적 많은 '공모제 일반 입시'와 스포츠, 문화 활동, 위원회 및 자원봉사 등 과외 활동에서의 경험이 강조되는 '공모제 특별 추천 선발'로 나뉘어 진행된다.

(3) 종합형 선발

종합형 선발은 대학교 또는 학부 및 학과가 제시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방법이며 면접이나 논문,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에서 대학·학과 지망 이유나 고등학교 3년간 배운 것,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 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캐나다의 대학 입학 제도

HOW TO APPLY TO CANADIAN UNIVERSITIES



GENERAL ADMISSION REQUIREMENTS

Depending on the school, admission criteria, application process, and competition level can vary significantly. You will need to visit your chosen institutions' websites for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and specific details about their admission criteria. This is more general information that applies to most schools.



Academic marks



Prerequisite courses



Language profici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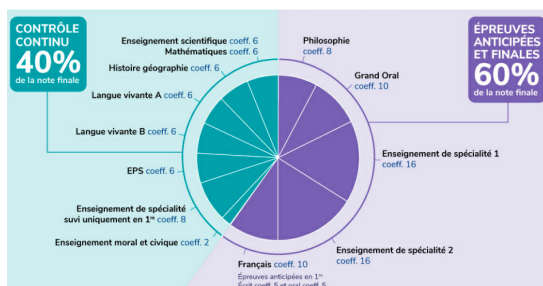
[그림 1] 캐나다 대학의 일반적인 입학 요건

캐나다 대학의 입학 요건은 △고등학교 11학년 및 12학년 성적 △전공별 선택 과목(선수과목) △언어능력(영어, 프랑스어)이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의 요구에 맞게 선택 과목을 선정하고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은 학부모, 진로 상담 교사와 상담해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하고 교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캐나다의 큰 지리적 규모로 인해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내실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의 대학 입학 제도

바칼로레아 개혁안은 첫째, 계열을 일반과정에서 폐지한다. 둘째, 최종 시험 과목을 4개 과목으로 통일한다. 필기시험 비중을 낮추고, 구술시험과 고등학교 성적에 비중을 둔다. 제도의 개정으로 첫째, 계열 선택이 아닌 전공과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학습과 진로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습 내용이 연계되어 대학 중퇴나 낙제가 줄어들게 되었다. 셋째, 시험공부 이외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되었다. 바칼로레아 종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계, 기술계, 전문계로 재편되었다. 바칼로레아의 점수는 40%의 내신 성적 (contrôle continu)과 60%의 최종시험(épreuves terminales)의 성적을 반영해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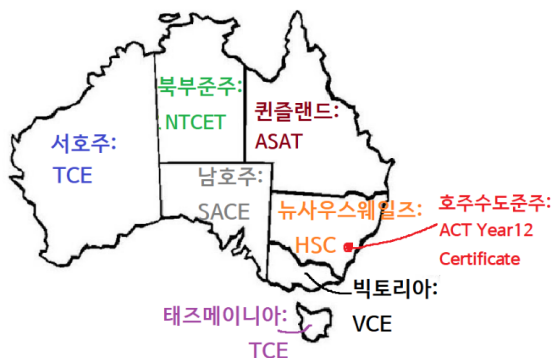


[그림2] 바칼로레아 최종점수 계산방법
(출처: <https://www.cours-thales.fr/preparation-bac/reforme-bac>)

기존 '입학 자격 취득 후 진학 등록 제도(APB)'가 아닌 파르꾸르쥬(Parcoursup)를 도입했다. 파르꾸르쥬는 우선순위 없이 10개까지 대학과 학부를 선택하고, 자기소개서와 함께 입학 지원 서류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APB제도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개선되고, 정원 초과나 중퇴와 유급을 억제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성적이 반영될 수 있어 학습 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대학 입학 제도



호주의 대입 제도는 주마다 상이하다. 뉴사우스웨일즈 (NSW)주에서는 고등학교 수료 시험(HSC)을 11학년과 12학년 동안 공부한다. HSC 점수는 호주 대학 입학 등급 지수(ATAR)로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호주 또는 해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한다.



뉴질랜드의 대학 입학 제도

뉴질랜드의 대학 입시 제도 NCEA는 11학년부터 13학년 학생들이 취득하며 호주, 영미권 국가, 유럽 국가 등 많은 나라에서 대학 입학 성적으로 활용한다.

레벨	 NCEA Level 1	 NCEA Level 2	 NCEA Level 3
의미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	대학교 입학을 위해 필요
취득 조건	문해력 10학점, 수리력 10학점, 이외 과목 60학점	레벨 1 또는 그 이상에서 20학점, 레벨 2 또는 그 이상에서 60학점	레벨 2 또는 그 이상에서 20학점, 레벨 3 또는 그 이상에서 60학점

기획 및 편집 교육연구사 박효진
발간위원 8명

표지 디자인 영주가흥초등학교 교사 최신영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TEL 054-840-2276

WEB www.gbe.kr/gber

독일의 대학 입학 제도



발간위원 : 최신영 (영주가홀초등학교 교사)

1. 독일의 대학 입학 관문 ‘아비투어(Abitur)’

독일의 대학 입학 제도는 국가가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을 위해 김나지움(Gymnasium,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 국가의 역할이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독일 공립대학 입학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학과에 얼마나 빨리 입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최종 아비투어¹⁾(Abitur)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아비투어 보유자는 대학 입학 자격이 있지만,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은 입학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입학 대기 기간은 지원 분야에 따라 다르다. 정원이 충분한 학과는 지원 학생들의 입학을 바로 허가하지만, 의학이나 법학과 같은 인기 있는 학과의 지원자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아비투어 보유 학생에게는 추가 입학 요건이 흔하지 않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시험이나 외국어 능력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최종 아비투어 성적이 대학 입학에 공립대학보다 영향을 덜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입학시험, 인터뷰 및 기타 기준에 선발 비중을 더 둘 수 있다.

가. 중등학교 시스템

독일 교육 시스템은 16개의 연방 주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교육 정책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중등학교 기간은 연방 주에 따라 12년에서 13년 사이로 다양하다. 고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에 따라 2년(11~12학년) 또는 3년(11~13학년)이다. 13년제 시스템에서 11학년은 입문 단계이고 12~13학년이 자격 단계이다. 12년제 시스템에서는 입문 없이 자격 단계부터 시작되지만 13년제와 같은 교육과정을 2년으로 압축하여 제

1) 김나지움 졸업 시험인 동시에 대학 입학 자격시험, 라틴어 abire에서 파생되었고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음.

공한다. 일부 주에서는 입문 단계가 10학년 교육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과목 조합과 과목 이름은 주마다 다르지만 기초(필수) 과목은 독일어, 수학, 외국어(영어 및 프랑스어)가 있고, 선택 과목에는 예술 및 언어, 과학, 사회 과학 등이 있다.

자격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택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들 과목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 중앙집중식으로 시험을 본다. 기초(필수) 과목과 선택(심화) 과목별 성적은 매 학기 정기적 시험에 따라 산출되며, 아비투어 시험의 총점에 포함된다. 시험 결과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평정척도로 표시되고, 이 평정척도는 0~15점까지의 점수로 환산된다(그림 1).

학년 간 진급은 학교 내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데 기초(필수) 과목에서 낙제점(ungenügend)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년을 반복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의 D등급(mangelhaft 등급)과 유사한 두 개의 조건부 합격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세 과목에서 이러한 등급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

Secondary Grading Scales in Germany																
DESCRIPTIVE GRADE	Very Good (Sehr Gut)			Good (Gut)			Satisfactory (Befriedigend)			Sufficient (Ausreichend)			Deficient (Mangelhaft)			Insufficient (Ungenügend)
SECONDARY SCALE	+	1	-	+	2	-	+	3	-	+	4	-	+	5	-	6
POINT SYSTEM (UPPER-SECONDARY STAGE)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WES CONVERSION	A			A			B			C			D			F

〈표 1〉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2024 아비투어 일정

날짜	주제
2024. 4. 22.	▪ 생물학 필기시험
2024. 4. 23.	▪ 미술, 윤리, 독일어, 지리, 역사, 컴퓨터 과학, 음악, 스포츠, 경제학 분야의 필기시험
2024. 4. 24.	▪ 스페인어 필기시험
2024. 4. 25.	▪ 독일어 필기시험
2024. 4. 26.	▪ 물리학 필기시험
2024. 4. 29.	▪ 화학 필기시험
2024. 4. 30.	▪ 영어 필기시험
2024. 5. 2.	▪ 라틴어 필기시험
2024. 5. 3.	▪ 수학 필기시험
2024. 5. 7.	▪ 프랑스어 필기시험
2024. 5. 8. - 6. 5.	▪ 후속 단계 진행

다. 아비투어 예시 문항

IQB에 소개된 2023년 아비투어 과목(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수학) 중 영어 과목을 예로 들면, 기본 수준 과제와 심화 수준 과제로 나누어지고, 글쓰기 영역·언어 중재 영역·듣기 영역별로 제시되는 과제가 다르다. 기본 수준 과제의 예시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2023 아비투어 영어 과목 기본 수준 과제 예시

영역	주제
글쓰기	▪ 비문학 텍스트 기반, 잡지 기사, 주제: 인종 관계, 미국 경제, 아메리칸 드림 'Like A Black Unicorn'.(Forbes) 기사를 읽고 과제 해결하기 1. Clarence Wooten에 대한 전기 정보를 종합해 보시오. (30%) 2. 저자가 Clarence Wooten과 그의 스타트업 STEAM Role을 발표하는 방식을 분석해 보시오. (30%)

영역	주제
글쓰기	3. 다음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40%) 3-1. “기술과 실리콘 벨리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업가로서 Palo Alto에 기반을 둔 것은, 알다시피 흑인 유니콘과 같은 것인데, 이는 불행한 일이다.”(II. 25-27) 이 인용문을 시작점으로 유색인종을 위한 아메리칸 드림의 접근성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3-2. 당신은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현재의 주제에 대해 강연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인 TEDxTeen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평가하는 연설을 작성하십시오.
언어 중재	▪ 신문 기사, 주제: 청년들의 정치 참여, 대상 텍스트 유형: 이메일 과제: 당신의 영국인 친구는 영국 청년의회 의원인데 지역 정치에 종사하는 젊은 독일인들에 대해 묻습니다. Muldestausee 청소년 위원회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이메일을 친구에게 써 보시오. (중앙 독일 신문 기사 참조하여 제시함)
듣기	▪ 팟캐스트에서 발췌, 주제: 서평, 이주와 정체성, 과학 기술의 역사 과제: 유명 작가에 대한 팟캐스트를 두 번 듣고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정답을 체크하십시오(선택형, 문장 완성형, 핵심어 활용 요약형).

2. 대학 입학 제한 ‘누메루스 클라우주스(Numerus Clausus, 이하 NC)’

독일의 대학 입학 전형은 크게 입학 제한이 없는 학과에 대한 전형, 입학 제한이 있는 학과에 대한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행정 플랫폼인 ‘호크슐쉬타르트데(hochschulstart.de)’의 관련 지원 포털에서 관심 있는 대학과 학과의 절차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학생의 희망 대학, 학과와 아비투어 성적을 토대로 ‘대화형 대학 입학 조정 과정(Dialogorientieren Serviceverfahren, 이하 DoSV)’을 거쳐 결정한다. DoSV는 많은 예비 대학생이 동시에 여러 대학·학과에 지원해 생기는 문제 상황(지원자 입장에서는 지원한 대학·학과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없는 점,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여러 입학 제안을 받고 그 중 하나를 수락하지만 지원한 다른 대학들에 동시에 알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예방하고자 생긴 시스템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입학 제한 정원이 있는 학과(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 또한 DoSV를 통해 조정된다. 김나지움의 졸업 자격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인 최종 아비투어 성적은 학생들이 제한된 수의 정원이 있는 인기 학과에 얼마나 빨리 입학할지 영향을 크게 미친다.

독일의 2023/24학년도 겨울학기에 입학이 제한되는 NC를 실시한 비율은 총 37.9%이다. 2017/18학년도 겨울학기의 NC 실시 비율 42.4%에 비해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했다.

독일 16개 연방주의 2023/24학년도 겨울학기 NC 실시 학과 비율은 <표 3>과 같다.

<표 3> 독일 16개 연방주의 2023/24학년도 겨울학기 NC 실시 학과 비율

연방 주		WS 2023/24	WS 2022/23	Differenz
함부르크	Hamburg	62,8	64,8	-2,0
베를린	Berlin	61,2	60,8	+0,4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55,4	55,8	-0,4
브레멘	Bremen	50,3	52,5	-2,2
자를란트	Saarland	50,0	64,1	-14,1
니더작센	Niedersachsen	45,5	48,8	-3,3
독일 평균	Deutschland	37,9	39,7	-1,8
작센	Sachsen	38,4	37,4	+1,0
바이에른	Bayern	32,9	36,5	-3,6
헤센	Hessen	30,7	33,2	-2,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30,4	30,9	-0,5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Mecklenburg-Vorpommern	26,5	27,6	-1,1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25,2	27,1	-1,9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24,5	29,4	-4,9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22,4	24,2	-1,8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21,3	25,7	-4,4
튀링겐	Thüringen	19,6	20,7	-1,1

NC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은 연방 주는 함부르크, 베를린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레멘, 자를란트에서는 NC를 실시하는 학과가 50% 이상이다. NC의 실시 비율이 낮은 지역은 입학 정원 제한이 없는 학과가 많음을 의미하며 튀링겐주에서는 2023/24학년도 겨울학기에 80.4%의 학과가 입학 정원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는 연방 주와 대학 장소에 있다. 동일 학과의 경우에도 대학이 속한 주에 따라 NC 비율이 다르다. 이는 NC가 적용되지 않는 학습 기회를 찾고 있는 학생의 경우 원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의 위치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NC를 실시하는 학과별 비율을 살펴보면 법률, 경제, 사회, 사회과학이 가장 제한 비율이 높다. 수학,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는 약 1/3의 제한 비율이 있고, 언어학, 문화과학은 가장 제한 비율이 낮다(그림 2).

법률, 경제,
사회 및 사회과학



45,9 %

수학, 자연과학



33,6 %

공학-과학



30,0 %

언어학, 문화학



23,4 %

[그림 2] 과목별 제한된 학과 비율(출처: WS 2023/24)

3. 특징

독일 대학 입학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학생이라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학적 능력을 갖췄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주 정부와 대학이 대학 입학 행정 플랫폼인 호크슐쉬타르트데를 운영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또한 독일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김나지움 졸업 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을 위한 아비투어를 치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들도 있다. 2022년에는 약 70,000명의 학생이 졸업장 없이 독일 대학에 등록했으며, 이는 독일 전체 학생의 2,4%에 해당한다. 1997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장(아비투어)이 없는 대학 졸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전국 대졸자 비율의 1.9%인 9,532명이 졸업하였다. 소위 '제3의 교육 경로'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고 졸업하는 길이 확립된 것이다.

【참고 자료】

- Abiturtermine 2024 alle Bundesländer, <https://www.profiling-institut.de/abiturtermine-2024-alle-bundeslaender/>
- CHECK Numerus Clausus 2023/24, https://www.che.de/download/check-numerus-clausus-2023/?wpdmml=29066&refressh=65ff3207f37bd1711223303&ind=1688560194260&filename=1688560194wpdm_CHECK-Numerus-Clausus-an-deutschen-Hochschulen-2023_24.pdf
- Das Informations- und Bewerbungsportal, <https://hochschulstart.de/informieren-planen/was-wo-und-wie>
- Education in Germany, <https://wenr.wes.org/2021/01/education-in-germany-2>
- Numerus Clausus in Deutschland, <https://hochschuldaten.che.de/deutschland/numerus-clausus-in-deutschland/>
- Pools für das Jahr 2023 — Englisch, <https://www.iqb.hu-berlin.de/abitur/pools2023/englisch/>
- Studieren ohne Abitur in Deutschland, <https://hochschuldaten.che.de/deutschland/studieren-ohne-abitur-in-deutschland/>

미국의 대학 입학 제도



발간위원 : 최현 (천생초등학교 교사)

1. 미국의 대학 입시 주요 평가 항목

미국의 대학 입시 평가 항목은 대학마다 조건이 다르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요구하는 평가 항목의 개수도 다르다. 4년제 대학에서는 주로 평점(Grade Point Average, GPA), 에세이(college essay), 표준화 시험의 평가 결과, 대외활동(Extracurricular, EC), 수상실적(honors),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 입학지원서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반면에 2년제 대학은 기본적인 입학을 위한 서류나 고등학교 학위 증명서로도 입학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4년제 대학 입학에 주로 필요한 항목들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평점(GPA)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GPA라고 주로 부르며 Grade Point Average, 즉 학교 내신 성적이다. GPA는 가산점이 있는 WPGA(Weighted GPA)와 가산점이 없는 UWGPA(Unweighted GPA)로 나뉜다.

점수	일반 과정	심화 수업, 대학과목 선이수제, 국제 바칼로레아
A	4.0	5.0
B	3.0	4.0
C	2.0	3.0
D	1.0	2.0
F	0	1.0

[그림 1] WPGA 표준 척도

WGPA는 수업의 난이도와 학생의 성적을 모두 고려한 어려운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심화 수업(honor class), 대학 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AP),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같은 도전적인 과정을 선택한 학생에 대한 노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과정의 A등급은 4.0이지만 WGPA로는 5.0에 해당한다. UWGPA는 무조건 4.0 만점으로, 가산점이 없는 방식이다.

나. 에세이(college essay)

많은 대학에서는 지원 절차의 일부로 대학 입학 에세이를 요구한다. 이 에세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성취도, 강점 및 기타 개인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에세이는 크게 모든 대학에서 공통으로 내는 메인 에세이(main essay)와 대학별 문항(supplemental essay)으로 나뉜다.

메인 에세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용 지원서(Common Application)와 연합 지원서(Coalition Application)를 사용하는 대학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문항이다. 분량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용 지원서 기준 200단어 이상, 650단어 이하이다.

〈표 1〉 2023-24 공용 지원서 메인 에세이 항목

번호	질문
1	지원서에 적을만한 배경, 정체성, 흥미 또는 재능이 없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시오.
2	인생의 장애물로부터 받는 교훈은 성공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무엇을 배웠는가?
3	어떤 의견에 대해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했던 적을 떠올려 보시오.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가?
4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감사하게 만든 것을 떠올려 보시오. 그 감정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	나를 성장시켰거나 나 또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업적, 사건, 깨달음에 대해 논의하시오.
6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좋아하는 주제, 생각, 개념을 서술하시오. 왜 그것들이 당신을 사로잡는가? 무엇이 또는 누가 당신을 더 배우고 싶어지도록 만드는가?
7	자유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시오.

대학별 문항은 대학별로 따로 요구하는 에세이로 메인 에세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왜 이 학교에 지원했는가, 대외활동이나 수상실적 설명, 희망 전공에 관해 묻는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미래의 룸메이트가 당신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특이한 항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 표준화 시험

대학 입시와 관련 있는 표준화 시험에는 PSAT, SAT, ACT 등이 있으며 국제 바칼로레아(IB)나 A-Level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1) 모의대학 수능시험(Preliminary Scholastic Assessment Test, PSAT)

PSAT는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의고사 같은 시험이다. 1년에 1번 있으며 고등학교 3년 동안 3번을 칠 수 있다. SAT 점수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점수는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에 사용되기도 한다.

2) 대학 수능시험(Scholastic Assessment Test, SAT)

SAT는 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매년 8, 10, 11, 12, 3, 5, 6월에 실시한다. SAT 출제 및 주관 기관인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는 24년 3월 10일 이후 모든 SAT를 디지털화시켰다. 과목은 읽기 & 쓰기(Reading and Writing)와 수학(Math)이며 각 과목은 2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 쓰기는 54문제가 출제되며 64분이 주어지고, 수학은 44문제가 출제되며 70분이 주어진다. 이전 종이 SAT 시험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SAT의 특징은 컴퓨터 적응 시험 형식이라는 것이다. 컴퓨터 적응 시험이란 응시자가 선택한 답안을 기반으로 응시자의 지식수준에 맞게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도록 설계된 시험을 말한다. SAT의 경우 각 과목의 첫 번째 모듈은 쉬운, 중간, 어려운 난이도 문제가 섞여 있으며 학생들의 첫 번째 모듈 결과에 따라 두 번째 모듈의 난이도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보는 시험 문제가 다르며 성적표에는 총점, 과목 점수, 응시자 집단과 비교한 성적 비교 및 백분위 순위 등이 포함된다.

3) 대학 입학 학력고사(American College Testing, ACT)

ACT는 대부분의 주에서 매년 2, 4, 6, 8, 10, 12월에 실시한다. 읽기(Reading) 40문제 35분, 영어(English) 75문제 45분, 수학(Math) 60문제 60분, 과학(Science) 40문제 35분인 시험이며 쓰기(Writing)는 선택사항이다. SAT와의 차이점은 과학 과목이 있다는 것이며 문제 수에 비해 시험시간이 비교적 짧다.

라. 대외활동(EC)

대외활동은 학교 공부 외에 학생이 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주로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인턴, 각 대학의 여름 캠프, 운동, 예술 활동 등이다. 학생이 공부 이외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외활동이 평점이나 표준화 시험만큼 중요한 항목이다.

마. 수상실적(honors)

수상실적은 경시대회 등에서 받은 상을 의미한다. 인문계에서는 주로 토론 대회, 이공계에서는 주로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나 국제 과학기술 경진대회, 예체능은 해당 분야의 콩쿠르나 스포츠 대회에 참가한다.

바.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는 교사 또는 학교 상담사가 학생의 강점, 약점 등에 관해 서술한 자료이다. 학생이 사전에 볼 수 없으며 미국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자료이다. 인턴 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추천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사. 입학지원서(Application)

입학지원서의 종류에는 주로 사용하는 공용 지원서(Common Application)와 연합 지원서(Coalition Application)가 있다. 이 외에도 MIT에서 사용하는 자체 지원서나 Universal College Application이 있는데 사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2. 미국의 대학 입시 전형

가. 얼리 액션(Early Action)

수시에 해당하는 얼리 액션은 여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논바인딩 전형이다. 접수 시기는 11월 중순이며 미국 대학 결정일인 5월 1일까지 합격한 다른 대학과 충분히 비교할 시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은 이 전형에 떨어지더라도 부족한 서류를 보완할 기회로 삼아 다른 전형에 지원하기도 한다.

얼리 액션 유형 중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Single Choice Early Action)이 있는데 오직 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물론 논바인딩이므로 합격했더라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미국의 상위권 대학교에서 이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다.

나.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수시에 해당하는 얼리 디시전은 하나의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했다면 무조건 해당 학교에 등록해야 하는 바인딩 전형이다. 얼리 액션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만약 학생이 얼리 액션에 10개 학교, 얼리 디시전에 1개 학교를 지원해서 얼리 액션의 3개 학교와 얼리 디시전의 1개 학교에 합격했다면 얼리 디시전의 1개 학교에 무조건 가야 한다.

다. 레귤러 디시전(Regular Decision)

정시에 해당하는 레귤러 디시전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1월 초까지 지원을 받는 유형이다. 여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는 논바인딩이다.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에서 거절을 받은 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지만, 보류를 받은 학교에는 이전에 제출한 서류를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라. 롤링 어드미션(Rolling Admission)

일부 대학에서 지원하는 롤링 어드미션은 선착순 입시 전형이다. 대학교 학기가 시작되기 직 전이나 학생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지원서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로 기간이 긴 편이다. 우선 지원 마감일이 있어 인기가 있는 학과에는 빨리 지원할수록 유리한 편이다.

각 전형 합격률을 살펴보면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합격률이 레귤러 디시전에 비해 높다. 대학교의 입장에서 빠르게 학생을 받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조기 수시 전형에서 선발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3. 미국 주요 대학 지원 요건

가.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전형은 얼리 액션과 레귤러 디시전이 있다. 지원 요건에는 입학지원서, 고등학교 기록부, SAT나 ACT 시험 점수, 추천서 2부, 에세이, 면접(필요시)이 있다.

입학지원서는 공용 지원서와 연합 지원서 형식을 받는다. 고등학교 기록부를 통해 평점을 확인하는데 대부분 학생이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고 들어온다. SAT나 ACT 시험 점수는 하버드 대학교의 TEST-Optional 정책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로는 제출이 선택사항이 되었다. 참고로 2023년 합격자들의 SAT 평균 점수는 1,520점, ACT 평균 점수는 34점이다. 추천서는 다른 두 과목의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에세이는 입학지원서의 종류에 따라 항목이 다르며 하버드 대학교는 추가로 학교 자체 에세이 3개를 요구한다. 가끔 위원회가 학생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면접 일정을 잡기도 한다. 하버드 대학교 합격률은 3.41%로 매우 낮다.

나. 예일 대학교

예일 대학교 입학 전형은 얼리 액션과 레귤러 디시전이 있다. 지원 요건에는 입학지원서, 고등학교 기록부, SAT 또는 ACT 시험 점수, 추천서, 에세이, 예술 포트폴리오(예술 분야 학생)가 있다.

입학지원서는 공용 지원서와 연합 지원서 형식을 받는다. 추천서에는 고등학교 선생님 2명과 상담교사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에세이는 입학지원서의 종류에 따라 항목이 다르며 추가로 예일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에세이를 작성해야 한다. 예술, 음악, 연극 등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관련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한다. 예일 대학교의 합격률은 7%이다.

다. 스탠퍼드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의 입학 전형은 얼리 액션과 레귤러 디시전이 있다. 지원 요건에는 입학지원서, 고등학교 기록부, SAT나 ACT 시험 점수, 추천서, 에세이가 있다.

입학지원서는 공용 지원서 형식을 받는다. 입학생의 평균 평점은 3.95점이며 SAT 평균 점수는 1,505점, ACT 평균 점수는 35점이다. 에세이는 공용 지원서 문항과 학교 자체 항목 3개를 추가로 요구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합격률은 3.7%이다.

3. 특징

미국 대학 입시 주요 평가 항목에는 평점, 에세이, 표준화 시험의 평가 결과, 대외활동, 수상 실적, 추천서, 입학지원서 등이 있으며 대학 입시 전형에는 크게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 레귤러 디시전, 롤링 어드미션이 있다. 미국 대학 입학 제도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를 비롯하여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학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 전형 또한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좋다.

【참고 자료】

- ▶ 하버드 대학교, <https://www.harvard.edu>
- ▶ 예일 대학교, <https://www.yale.edu>
- ▶ 스탠퍼드 대학교, <https://www.stanford.edu>

핀란드의 대학 입학 제도



발간위원 : 최휘도(아천초등학교 교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핀란드 교육을 떠올릴 때 ‘평등’의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핀란드의 대학 입시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핀란드 교육의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치열한 경쟁의 장이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핀란드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약 1/3 정도의 학생만이 대학(일반대학과 응용과학대학을 포함)에 입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입시 경쟁률을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는 최근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1. 핀란드의 대학 입시 제도

가) 핀란드의 높은 대학 입시 경쟁률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핀란드는 높은 대학 입시 경쟁률을 보인다. 핀란드의 대학 입시 경쟁률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수가 많지 않다. 핀란드의 인구는 약 5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1/10 정도로 인구 자체도 많지 않은 나라이다. 하지만 4년 과정의 종합대학의 경우 우리나라에 약 200개교의 종합대학이 있는 것에 비해 핀란드는 전국에 10개교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1/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별 학생 수 또한 수도에 있는 헬싱키 대학교(약 35,000명)를 제외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¹⁾ 물론 핀란드에는 종합대학 외에 약 20개의 응용과학대학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응용과학 대학들은 그 규모가 종합대학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더라도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절대적인 대학과 입학 가능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약 25,000명 규모이며, 경북대와 영남대도 비슷한 수준이다.

〈표 1〉 핀란드의 종합대학과 학생 규모

대학	학생 수(명)	대학	학생 수(명)
헬싱키 대학교	약 350,000	유바스킬라 대학교	약 15,000
탐페레 대학교	약 20,000	오울루 대학교	약 14,000
투르쿠 대학교	약 20,000	오보 아카데미 대학교	약 5,000
알토 대학교	약 18,000	바사 대학교	약 5,000
이스턴 핀란드 대학교	약 15,000	라플란드 대학교	약 4,000

둘째, 핀란드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더 높은 학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다. 물론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직업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그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학력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대학 입시 경쟁률이 학과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 특히나 의학 계열과 법학 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더욱 높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방증한다.

〈표 2〉 핀란드 대학 진학 평균 경쟁률

연도	2017	2018	2019	2020
지원자(명)	71,409	75,255	76,161	85,197
합격자(명)	19,548	20,352	20,937	23,742
경쟁률	3.7:1	3.7:1	3.6:1	3.6:1

나) 대학 입학 자격시험 (Matriculation Examination, *Ylioppilastutkinto*)

핀란드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하 대입자격시험)이다. 대입자격시험은 국가 수준에서 이뤄지는 시험으로서 봄과 가을 한 해에 두 번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수학능력평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필수이수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이 필수 과목에 모두 합격하면 졸업 자격과 대입 자격을 동시에 얻게 된다. 모국어는 필수 응시 과목이며 4개의 영역 중(수학, 제2국어, 외국어, 인문 및 자연과학) 적어도 4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모국어를 포함해 5개의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다른 과목도 응시할 수 있다. 일부 과목은 기본 시험과 심화 시험 두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의학 계열의 경우 수학 기본 시험에 비해서 수학 심화 시험의 환산 점수가 더 높게 반영되어 똑같은 1등급이더라도 수학 심화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는 7개의 등급으로 나뉘지며 일정한 비율을 정해 상대 평가로 이뤄진다. 다만, 시험위원회에서는 상위 그룹 학생이 많이 선택한 과목의 상위 등급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성적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과목에 따라서 등급별 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마지막 등급은 불합격을 의미하며, 5개의 필수 응시 과목 모두 불합격을 피해야만 인문계 졸업 자격 및 대학 입학 자격을 갖추게 된다.

〈표 3〉 대학 입학 자격시험의 등급과 점수

순위	약어	원문 등급명	기준 비율	배점
1	L	Laudatur	5%	7
2	E	Eximia cum laude approbatur	15%	6
3	M	Magna cum laude approbatur	20%	5
4	C	Cum laude approbatur	24%	4
5	B	Lubenter approbatur	20%	3
6	A	Approbatur	11%	2
7	I	Improbatur	5%	-

다) 대학본고사(Selection tests, *Valintakokeet*)

핀란드의 대학본고사는 대입자격시험 외에 학교별로 치러지는 입학시험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본고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핀란드의 경우 대학교가 다르더라도 같은 학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공동 시행은 핀란드 교육 당국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선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별도로 지원하고 학교 역시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대입자격시험과 비교할 때 대학본고사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 선발에 필요한 시험을 대학교에 직접 준비하고 시험 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교는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보다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견 우리나라의 수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핀란드는 대학 입학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오로지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뿐이다. 또한 논술 과정이 중요시 되는 우리나라의 수시와는 달리 핀란드의 대학본고사는 주로 객관식 문제들로 이뤄져 있다.

각 학과는 약 한 달 전쯤 대학본고사에 필요한 준비 자료를 공개한다. 다만 해당 준비 자료의 수준과 양이 상당하여서 학생들이 한 달 만에 시험에 대비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경쟁률이 치열한 인기 학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서 대학본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본고사에 따른 사교육의 증대가 지역과 소득에 따른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최근 핀란드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지나친 대학 입시 경쟁률로 대표되는 핀란드의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 교육 당국의 최근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최초 지원자 할당제’와 2020년에 이뤄진 대학 입시 제도 변화 그리고 대입자격시험의 필수 과목 추가이다.

가) 최초 지원자 할당제(Quota for first-time applicants)

핀란드의 최초 지원자 할당제는 **대학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최초 지원자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대학과 학과마다 할당 비율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최초 지원자는 입학이 이뤄지는 해당 연도 졸업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특정 연도 이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최초 지원자 할당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 대학 입학 지원자의 적체 해소이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핀란드는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 중 약 30%만이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매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적체 학생들이 생긴다. 이에 최초 지원자 할당제를 통해 적체 인원의 증가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둘째는 대학 입학생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핀란드의 대학 입시가 치열한 만큼 입학생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평균 23.7세), 할당제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를 앞당겨 효과적인 대학 교육을 도모하였다.

나) 2020 대학 입시 제도 개혁

2020년에 이뤄진 핀란드의 대학 입시 제도 변화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큰 변화였다. 핀란드의 대학 입시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입자격시험’과 ‘대학본고사’ 이 두 개의 시험으로 대표된다. **2020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의 주요 골자는 ‘대입자격시험의 강화’였다.** 이전까지 핀란드의 대학 입학 선발 방식은 대학본고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절반 정도의 대학교가 대입자격시험과 대학본고사를 동시에 요구하였으며, 대학본고사만을 보는 전형이 대입자격시험만을 보는 전형의 두 배나 되었다. 하지만 2020년의 개혁 이후 핀란드 정부는 **대입자격시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과 대입자격시험과 대학본고사를 함께 요구하는 전형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현재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60%의 학생이 대입자격시험 전형으로, 40%의 학생이 본고사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제도 개혁이 적용되기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2020 대학 입시 제도 개혁에 따른 전형 비율 변화

구분	2016	2020 변경 방향
대입자격시험	15%	50% 이상
대입자격시험 + 대학본고사	49%	폐지
대학본고사	34%	50% 미만
기타	2%	유지

다) 대입자격시험 필수 과목 증대

핀란드의 대학 입시 제도 변화에서 가장 최근에 이뤄진 변화는 2022년에 진행된 대입자격시험 필수 과목의 증대이다. 이전까지 대입자격시험에서 학생들은 모국어(필수)에 선택 필수 3과목을 더해 총 4과목을 통과하면 입학 자격을 갖추 수 있었다. 물론 대학과 학과마다 필요에 따라 한, 두

과목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4과목만으로 대학 응시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2022년 핀란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에 원하는 학생들은 모국어에 더해 4개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5개의 과목을 통과해야만 졸업 및 입학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입자격시험을 강화했던 2020년에 이뤄진 개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필수 과목을 5개로 늘림으로써 대입자격시험의 중요성을 키우고 이를 통한 공교육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실제로 대학 입학시험 위원회 사무총장인 Tiina Tähkä는 언론과의 면담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의 강화**를 그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3. 대입 제도 변화의 주요 방향

핀란드의 대학 입시 제도는 높은 경쟁률과 교육의 불평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가) 사교육 영향력 감소 추구

핀란드의 대학본고사는 시험 자료가 방대하고 난도가 높아 학생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학과일수록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2017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법대생의 약 75%, 의대생의 약 50% 정도의 학생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사교육의 유무에 따른 입학 결과의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대입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나 핀란드의 경우 대부분의 사교육 시설이 헬싱키와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에 따른 접근 기회의 차이가 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는 과감하게 대학 입시 전형의 개혁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입자격시험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물론 대입자격시험의 강화가 새로운 사교육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고등학교의 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대입자격시험은 **개인의 노력이나 사교육이 도움을 받아야 했던 대학본고사에 비해 더욱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 공교육의 역할 강화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은 결국 공교육 역할 강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핀란드는 소위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들이 사활을 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과 대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대입자격시험에 ‘통과’하여 졸업 자격을 갖추는 것에 책임질 뿐이며, 대학본고사와 같은 본격적인 대입은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대입자격시험 전형 비율 증가, 대입자격시험 필수 과목의 추가와 같은 변화들은 대학 입시에서의 대입자격시험의 중요성을 키우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대입자격시험에 필요한 필수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대입 준비생들의 부담 완화

핀란드의 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크게 두 개의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20 입시 제도 개혁에서 핀란드는 대입자격시험과 대학 본고사를 함께 요구하는 전형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생들이 동시에 두 개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크게 완화해 주는 조치였다. 또한 대학본고사에서도 학교가 달라도 학과 별 공동으로 본고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별로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며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핀란드의 대입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다.

4. 특징

핀란드는 높은 대학 입학 경쟁률 속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 지원자 할당제, 대입자격시험의 필수 과목 추가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입 자격시험의 중요성을 키우고 대학본고사의 비중을 줄인 2020년에 이뤄진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은 ‘사교육의 영향력 감소’, ‘공교육의 역할 증대’, ‘학생 부담 감소’라는 핀란드 교육이 추구하는 대입 제도 변화의 주요한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가 겪고 있는 높은 입시 경쟁률과 그에 따른 사교육의 증가 및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오랫동안 기울여 오고 있고, 일정 부분 효과도 보았지만, 최근 지역별 교육 격차의 심화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핀란드 대입 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Finland University Admissions Portal, <https://opintopolku.fi/konfo/en/>
-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 <https://www.ylioppilastutkinto.fi/en>
- Statistics Finland, https://stat.fi/index_en.html
- yle, Education reform means students must pass minimum five subjects in matriculation exams, <https://yle.fi/a/3-12360191>
- 이현 외(2021), 핀란드 대입제도의 특징 분석

영국의 대학 입학 제도



발간위원 : 김영주(오태중학교 교사)

1. 영국의 중등교육과 대학 입시

영국의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고 통합과정의 중등학교 5년, 후기 중등 과정 2년, 대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기 2년간의 Sixth Form 과정은 대학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영국의 중등교육 학제]

나이	학년	학교급	Key Stage	국가 시험
11~15	7학년~11학년	Secondary	Key Stage 3~4	GCSE
16	12학년	Sixth Form	Key Stage 5	AS Level
17	13학년			A Level

1)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

GCSE는 중등학교인 Key Stage 4를 졸업하면서 치르는 자격 시험으로 대부분 학생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그 외 과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GCSE 시험 점수는 최하 1등급에서 최고 9등급까지 있으며 대부분의 Sixth Form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5과목에서 4등급 이상의 GCSE 점수가 필요하며 이는 학교마다 다르다. GCSE 점수는 대학에서 지원 학생의 합격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2) Sixth Form 과정

후기 중등 과정인 Sixth Form은 2년 과정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목을 공부하거나 직업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A Level, B-Tec, IB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Sixth Form 과정에서 지도 교사는 학생의 A Level 시험 점수를 예측하고(Predicted Grades), 이 점수를 대학 입학 지원 시스템인 UCAS에 입력한다. 학생들은 이 예상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대학교 또한 이 점수를 토대로 지원 학생의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영국의 대학 입학 전형

영국은 학생이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먼저 선택하여 지원한 후 시험을 치르는 선지원 후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은 입학 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과정별 입학 조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여 적성, A Level 예상 점수, GCSE 점수 등을 토대로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다. 영국의 대학 입학 전형은 우리 나라의 진학사, 유웨이와 같은 대학 지원 시스템인 UCAS(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를 통해 진행된다. 대학 입학 전형 일정은 9월 초에 지원서 제출을 시작해서 이듬해 10월까지 계속된다.

[영국 대학 입시 전형 일정 - 2024년 입학]

구분	일자
대학 지원서 제출 시작	2023년 9월 5일
조기 지원 마감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의과대, 치의과대, 수의대 등)	2023년 10월 15일
위 학교 외 대학 및 학과 지원 마감	2024년 1월 31일
추가 지원(Extra Choices)	2024년 2월 28일~7월 4일
클리어링(Clearing) 지원	2024년 7월 5일~10월 21일
A Level 시험 결과 발표	2024년 8월 15일

1) 일반 전형

영국의 수험생은 최대 5개 학과에 지원할 수 있고,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수의과학과는 최대 4개 학과까지 지원할 수 있다. 9월 초에 UCAS에 지원서 제출을 시작하여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수의과학과 등은 10월 중순에 조기 지원이 마감되며 그 외 학교는 이듬해 1월 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추가 지원(Extra Choices)

지원한 5개 지원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학생이 대학으로부터의 입학 허가를 거절한 경우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개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3) 클리어링(Clearing)

6월 30일 이후에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조건부 합격의 입학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클리어링 전형을 통해 추가로 다른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또 A Level 시험에서 예상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도 기존에 받은 입학 허가를 거절한 후 클리어링 전형을 통해 지원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일반 전형과 추가 지원이 끝난 후에 정원이 남아 있는 과정에만 지원할 수 있다.

4) 대학의 합격 발표

대학은 지원자의 예상 점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합격(Unconditional offer), 조건부 합격(Conditional offer), 불합격 또는 지원 철회를 결정한다.

- 무조건적 합격 :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합당하여 최종 합격이 된 상태
- 조건부 합격 :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격하는 것으로, 대학은 학생에게 특정 점수 이상의 A Level 시험 점수나 A Level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다른 시험 점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최저 등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불합격 : 대학이 예상 점수 등 지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입학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합격을 거절한 경우
- 지원 철회 :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대학에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거나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학 측에서 지원자의 지원을 철회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다른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5) 지원자의 합격 수락

지원자는 대학으로부터의 조건부 합격을 통보받았을 경우 합격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결정할 수 있다. 합격을 수락할 경우 2개 학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 Firm Choice : 지원자가 가고 싶은 1순위 학과로 2순위 학과보다 입학 점수가 높음.
- Insurance Choice : 1순위 학과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다음 순위로 가고 싶은 2순위 학과로 Firm Choice가 조건부 합격일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음.

[2023년 18세 학생의 대학 입시 결과]

입시 결과	합격률
Firm Choice (1순위)	79%
Insurance Choice (2순위)	12%
불합격률	9%

(출처: <http://ucas.co.uk>)

3. 영국의 대학 입학시험의 종류

영국의 대학 입학시험의 종류에는 A Level, SQA 자격시험, IB, B-TEC 등 다양한 시험이 있다. 대학별로 입학 조건으로 요구하는 시험의 종류가 다르며, 시험별로 필요한 점수를 사전에 대학 홈페이지와 UCAS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옥스포드대학 경제경영학과 - 2024-2025 입학 조건]

시험 종류	점수	비고
A Levels	A*AA	수학 A 이상
Scottish Advanced Highers	AA-AAB	수학 A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39점	HL 766, 수학 6 또는 7
BTEC Level 3 National Extended Diploma	D*D*D*-DDD	과정에 따라 A Level 점수와 함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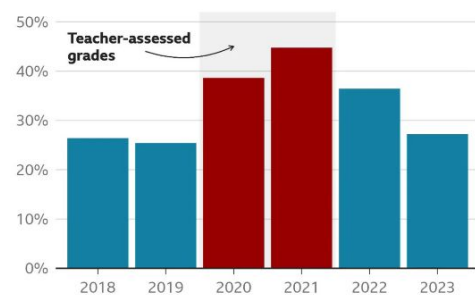
(출처: <http://ucas.co.uk>)

1) A Level(Advanced Level)

A Level(Advanced Level)시험은 2년간의 Sixth Form 과정의 마지막에 치르는 시험으로 공식 명칭은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GCE A Level)이다. 우리나라의 수학 능력평가시험과 비슷하며, 학생들은 A Level 시험에서 주로 3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학생이 A Level 시험을 치며 영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A Level 시험 점수로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 출제와 평가: 시험위원회인 AQA, OCR, Pearson과 WJEC Eduqas 4개 기관에서 담당함.
- 시험 방식과 평가 방식: 논술(Essay) 형식의 시험으로 절대평가 방식임.
- 응시자 수: 2023년 기준 18세 학생 약 279,700명
- 선택과목: 2023년 기준 전체 응시자 중 66.6%인 186,380명이 3과목에 응시함. 전체 응시과목 중 가장 많이 응시한 과목은 수학(96,853명, 11.2%)이며, 그 다음은 심리학(80,493명, 9.3%)과 생물학(74,650명, 8.6%)임.
- 시험 결과 발표일: 8월 중순
- 시험 결과: A*, A, B, C, D, E 등급과 불합격 등급인 U(Unclassified) 등급으로 나누어짐.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A Level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교사가 등급을 결정함. 2023년에는 전체 응시과목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응시자의 비율이 27.2%임.

[A Level 시험에서 전체 응시과목에서 A등급 이상 응시자 비율]



<지역: England, Wales, North Ireland, 출처: <http://bbc.co.uk>>

(2) SQA(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자격

SQA 자격시험은 스코틀랜드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Scottish Highers와 Advanced Highers가 있으며 A Level 시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 5학년에 Scottish Highers를 치른 후 중등학교 6학년에 Advanced Highers 시험에 응시한다. 스코틀랜드의 대부분 대학교는 Scottish Highers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나, 의학과와 수의학과 등은 Advanced Highers 점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3) B-TEC(Business and Technology Education Council) 자격

B-TEC 자격은 실용 기반의 직업 관련 자격으로 대부분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B-TEC 자격을 대학 입학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B-TEC 레벨3인 National Extended Certificate은 A Level과 같은 UCAS 점수를 인정받는다. 매년 1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B-TEC 점수로 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 B-TEC 점수만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A Level 점수와 혼합한 B-TEC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자격별 UCAS Tariff Points]

UCAS Tariff Points	A Level	Advanced Highers	IB (Higher Level)	B-TEC (National Extended Certificate)
56	A*	A	H7	D*
48	A	B	H6	D
40	B	C		
32	C	D	H5	M
24	D		H4	
16	E			P
12			H3	

위에서 언급한 시험 이외에 국제 자격인 International Baccalaureates, 지역별 자격인 Welsh Baccalaureates, Scottish Baccalaureates, 직업 관련 자격인 T Level, Cambridge Technicals 등 다양한 대학 입학시험이 있으며, 대학 및 학과에 따라 인터뷰나 별도의 입학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4. 영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점

영국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선지원 후시험 제도를 기본으로 5개 과정에의 복수지원과 추가모집 과정을 운영한다. 영국 대학 입시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이 실제 시험 점수가 아닌 교사들이 정한 예상 점수를 바탕으로 대학에 지원한다는 점이다. 예상 점수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무조건 또는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예상 점수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교사의 판단은 주관적이어서 예상 점수를 정할 때 학교의 종류, 학생의 경제적·계층적 배경, 학부모의 압력 등의 영향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에는 예상 점수 AAB를 받은 학생 113,000명 중 47.8%인 54,000명만이 실제로 AAB를 받았을 정도로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 사이의 격차가 컸다. 또한 2023년 A Level 점수 결과를 보면 지역별, 계층별 점수 격차가 커서 A Level 점수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Clearing 전형, 소외 계층을 위한 Contextual Offers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AS Level 시험과 A Level 시험의 분리 운영, 평가 방식의 변화, 과목 추가 등 A Level 시험에 변화를 주며 입시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참고 자료】

- The national curriculum in UK
<https://www.gov.uk/national-curriculum/key-stage-3-and-4>
-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영국의 대학입시제도 현황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4043>
- JCQ Examination Results <https://www.jcq.org.uk/examination-results/>
- UCAS DATES AND DEADLINES FOR UNI APPLICATIONS
<https://www.ucas.com/undergraduate/applying-university/when-apply/dates-and-deadlines-uni-applications>
- UCAS A Levels
<https://www.ucas.com/post-16-qualifications/qualifications-you-can-take/levels>
- AS and A Levels <https://www.nidirect.gov.uk/articles/and-levels#toc-2>
- How GCSEs are viewed by universities
https://www.ucu.org.uk/media/8409/Predicted-grades-accuracy-and-impact-Dec-16/pdf/Predicted_grades_report_Dec2016.pdf
- Getting into university with a BTEC
https://www.exeter.ac.uk/v8media/recruitmentsites/documents/discoveruniversity/Getting_into_university_with_a_BTEC.pdf
- BBC News <https://www.bbc.com/news/education-66473620>
- Introducing Advanced Highers
https://www.sqa.org.uk/files_ccc/NQIntroducingAdvancedHigherLeaflet.pdf
- The Guardian New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3/aug/17/a-level-results-reflect-inequalities-across-uk-after-challenging-years>
- Get the facts: AS and A level refor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t-the-facts-gcse-and-a-level-reform/get-the-facts-as-and-a-level-reform>

일본의 대학 입학 제도



발간위원 : 최광현 (길안초등학교 교사)

1. 대학 입학 선발 방법

(1) 일반 선발

일반 선발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대학 입학 선발 방법이며, 지원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해 공통 테스트 및 대학별 개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다. 한국 보다 대학 경쟁률이 낮은 일본의 특성상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입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유형이다.

(2) 종합형 선발

종합형 선발은 2019년까지 'AO 입시'로 불렸는데, 여기서 AO란 Admissions Office의 약자로 각 학교의 입학 전형 사무국을 지칭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AO 입시의 평가 기준은 "대학교 또는 학부 및 학과가 제시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상"이며, 종합형 선발로 명칭이 바뀐 현재도 그 특징이나 강조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종합형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논문,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에서 대학·학과 지망 이유나 고등학교 3년간 배운 것,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 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AO 방식은 2020년 문부과학성에 의해 종합형 선발로 변경되었는데 서류나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AO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대학 입학시험 등을 통한 학력 평가를 의무화하였다. 참고로 와세다 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등의 유명 사립대학교에서도 해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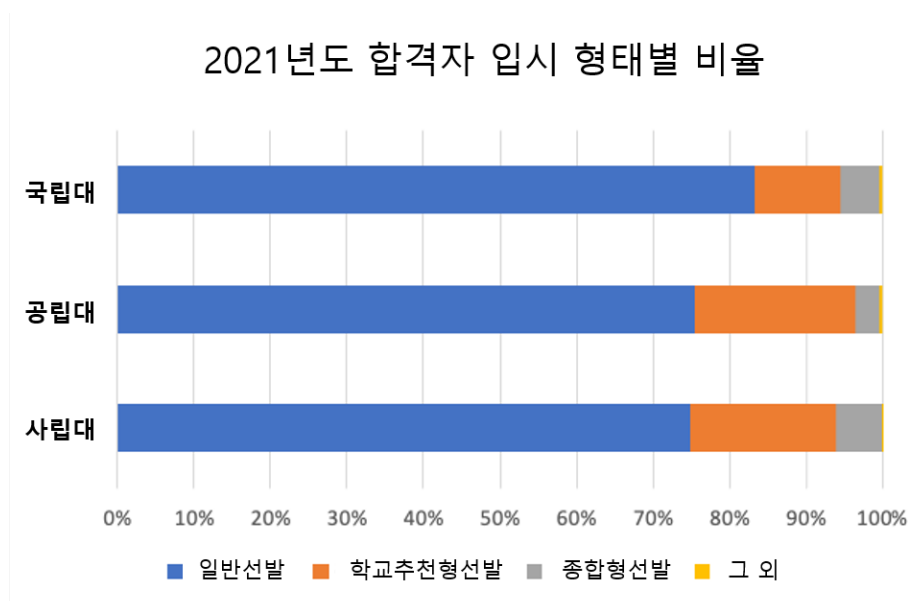
(3) 학교추천형 선발

학교추천형 선발은 크게 '지정교 추천 입시'와 '공모 추천 입시',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지정교 추천 입시'는 원서를 제출한 고등학교 학생 중 해당 대학이 학생을 지정하여

선발하는 형태이며 현역 고등학생만 원서 접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등학교마다 원서 접수 가능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으나 성적 및 평균치 등의 자격 기준이 엄격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수는 실제로 많지 않다. 만약 다수가 희망하는 경우 교내 자체적으로 전형이 실시되며 이때 성적, 과외 활동 실적, 생활 태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정교 추천 입시의 경우 추천을 받기만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해당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만, 합격자는 해당 대학에 반드시 입학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지정교 추천 입시는 사립대학이 주를 이루며 국립 대학 중에도 실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립대학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다음 형태인 ‘공모 추천 입시’는 대학의 원서 접수 조건을 충족한 수험생 중 출신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정교 추천 입시와는 달리 현역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국공립대학을 포함해 전국에서 널리 모집하는데 세부적으로는 모집 정원이 비교적 많은 「공모제 일반 입시」와 스포츠, 문화 활동, 위원회 및 자원봉사 등 과외 활동에서의 경험이 강조되는 「공모제 특별 추천 선발」로 나뉘어 진행된다.

2. 입학시험의 구조



[그림 1] 2021년도 국공사립대학 입학자 선발 현황(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이처럼 일본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대학 입학 선발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설립 형태에 따라 그 비중은 조금씩 다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국립대의 일반 선발은 83.3%로 국립대 합격자 중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립대나 사립대의 경우 일반 선발은 약 75%에 불과하며 전체 합격자의 4분의 1이 종합형 선발 또는 학교추천형 선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국공립대 입학시험의 구조

수험생들은 통상 1월 중순에 실시되는 공통 테스트(대학 입학 공통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공통 테스트가 끝나고 일주일 뒤부터 약 10일간 지망 대학을 결정해 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국공립대의 선발 형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일반 선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통 테스트(1차 시험)와 각 대학별 개별 시험(2차 시험)의 종합 점수를 이용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대학별 개별 시험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국립대의 경우 전기와 후기, 공립대의 경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어 실시된다는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공립대의 경우 독자적인 일정으로 입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만약 일정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다른 국공립대와의 복수 원서 제출 또한 가능하다.

국립대의 학교추천형 선발은 모집 인원이 적고 추천 요건도 엄격한 경우가 많지만, 공립대의 경우 지정교 추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합격자 비율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 등 일본 최상위권 국립 대학에서도 학교추천형 선발 및 종합형 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2) 사립대 입학시험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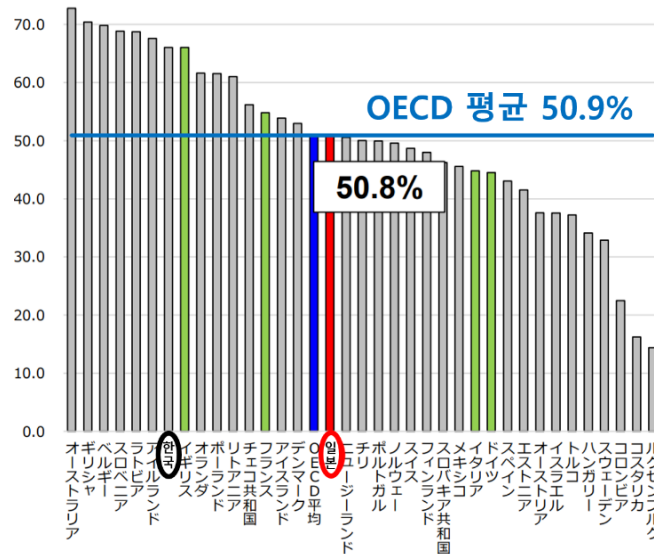
사립대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입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공통 테스트의 결과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공통 테스트 입학시험’, 다음으로 각 대학별 개별 시험의 결과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개인 학력 시험’, 마지막으로 공통 테스트(1차 시험)와 각 대학별 개별 시험(2차 시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통합 유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대학 입시 개혁 방침에 따라 사립 대학이 각자의 독자적인 특성과 교육 이념에 따라 자체 입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데, 대학이나 교수진에 따라 공통 테스트의 이용 여부, 시험에 필요한 과목, 점수의 배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를 사전에 결정해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의 대학 입학 경쟁

(1) 대학 진학률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은 대학 학사 과정 단계의 진학률이 51%로 OECD 평균과 같은 수준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한국의 진학률은 65%로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의 대학 입시 경쟁률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림 2] 2020년 25세 미만 대학 학사 과정 단계 진학률(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은 매년 한국의 수능 시험 당일 풍경을 뉴스에서 다루며 시험에 지각할 뻔한 수험생을 경찰차가 수험장까지 데려주었다는 등의 내용을 특집으로 방송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상황이 신기하다는 듯 한국의 수능에 대해 “인생을 결정하는 대학 입시”로 정의하곤 한다. 그럼 한국 이상의 학력 중심 사회이자 경쟁사회인 일본의 대학 경쟁률이 한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3] 한국의 수능 시험에 대해 방송하는 뉴스 방송 장면(출처: 일본 TV아사히)

일본은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더 많은 완전 고용 사회이기 때문에 프리터(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와 같은 생계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부모의 직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비율 또한 높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은 한국 못지않게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수능이라는 단 한 번의 대학 입학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대학 입학시험을 보기 전, 진학 대학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수험 경쟁이 조금씩 분산되고 걸러지는 구조이다. 한국에서 수험생은 주로 고3, 넓게 보더라도 고등학생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대학 입학 수험생, 고등학교 입학 수험생, 중학교 입학 수험생,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 수험생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그 이유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정 고등학교에,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정 중학교에, 그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정 초등학교에,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정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한 단계별 수험 과정 또한 존재하기에 다양한 종류의 수험생이 존재하는 것이다.

(2) 내부 진학(에스컬레이터) 방식

통칭 에스컬레이터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내부 진학’은 같은 사립학교 법인 내에서라면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 중 가장 유명한 대학교는 일본의 명문 사립대로 손꼽히는 게이오 대학교인데, 게이오 대학교 부속학교(유, 초, 중, 고)는 일단 입학만 하면 무시험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학교까지 입학이 보장되어 있기에 부속학교 입학 경쟁률 자체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심지어 게이오 대학교 부속 유치원 입학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특정 어린이집의 경쟁률마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부속 유치원과 부속 초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만으로 입학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면접 문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특정 어린이집 혹은 특정 유치원의 합격 노하우를 바라는 학부모가 그곳으로 몰리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진학 방식의 장점은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사전에 없애고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를 계발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 같은 법인 내에서의 연속성 있는 교육을 통해 법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겠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학비 자체가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빠르면 유치원부터 고액의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모의 직업 및 경제력에 의한 사회적 세습이 내부 진학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에 내부 진학 방식에 대한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4. 특징



[그림 4]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에 임하는 수험생들(출처: 마이니치 신문)

일본 대학 입시 제도의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첫째, 입시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입시 방법에 따라 고등학교 1·2학년 또는 3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입시 구조에 따라 수험 내용을 달리하여 공부해야 한다. 둘째, 각 대학별로 독자적인 입학시험을 실시해 입학자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공통 테스트의 결과만으로 합격을 결정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자체적인 2차 개별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문제 패턴 및 경향을 분석해 2차 시험에 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학 대학의 합격 결정 시점이 여러 차례 분산된다는 점이다. 사립대학교가 많은 일본에서는 동일한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부속 학교 간 진학을 할 경우, 무시험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내부 진학’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빠르면 유치원 입학과 동시에 명문대 입학이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공통 테스트(1차 시험) 후 치러지는 대학별 개별 시험(2차 시험)도 전·중·후기로 나뉘어 여러 차례 실시되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들이 느끼는 입시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01_d.htm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ikusei/gakusyushien/mext_00461.html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kaigisiryoy/content/000255573.pdf>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siryo/_icsFiles/afieldfile/2012/06/28/1322862_3.pdf
- ▶ 大学入試センター, <https://www.dnc.ac.jp/>
- ▶ 毎日新聞, <https://mainichi.jp/articles/20240114/k00/00m/040/057000c>
- ▶ ANN(テレビ朝日), 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000324419.html

캐나다의 대학 입학 제도



발간위원 : 허미연(삼성현중학교 교사)

1. 대학 입학생 선발 방법

캐나다의 지리적 여건과 제한된 학생들의 이동성으로 인해 캐나다에는 한국의 수능과 같은 대 단위의 표준화된 대학 입학시험이 없다. 큰 땅 규모로 인해 캐나다 학생 7명 중 1명만이 교육을 위해 출신 지역을 떠나며 학업 과정 내내 부모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학 은 각 고등학교의 질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적은 수의 고등학교를 다루고 있고, 대학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학생들을 세밀하게 차별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캐나다는 대학 간 격차가 영국이나 미국의 대학보다 훨씬 적다. 캐나다에서 가장 권위 있는 3 대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맥길 대학교는 전체 학부생의 약 13%를 교육하고 있다. U-15대학(캐나다의 15개 연구중심대학)은 전국 등록자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 간의 비교적 수평적인 위계질서는 수능이나 영국의 A레벨 시험처럼 학생들을 미세 한 차이로 선발할 필요성을 줄여준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포함한 대부분 주에는 의무적인 주정부 시험이 없다.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의 마지막 2년인 11학년과 12학년의 성적이 매겨진 교과 과정만을 기반으로 한 다. 따라서 11학년, 12학년의 성적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택한 학교와 프로그램 에 따라 전체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의 코스 요구사항은 70% 미만일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대학은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헬리팩스의 달후지 대학은 의대의 경우 80% 성적을 요구한다. 반면 칼튼 대학 공대의 최소 컷오프는 75%이다.

학생들은 보통 고등학교 12학년의 1월에서 3월 사이에 대학에 지원하며 날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각 주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을 대학에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대학은 약 8주 후에 11학년 성적과 12학년의 첫 2/3를 포함하는 일련의 점수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한 다. 이론적으로는 대학 진학 시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실제로 선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앨버타주, 매니토바주, 뉴펀들랜드주에는 예외적으로 주정부 시험이 있지만, 최종 성적 계산에 서 주정부 시험점수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시

험이 모든 과목에서 행해지지 않고 언어, 수학, 과학과 같은 핵심 과목에서만 시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정부 시험은 최종 성적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앨버타와 매니토바의 경우는 30%, 뉴펀들랜드의 경우는 50%가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정부 시험이 종종 대학 입학 결정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대학 입학 과정과 크게 관련이 없다. 대학은 이론적으로는 주정부 시험 결과에 따라 입학 허가를 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 대학은 지원자의 고등학교 성적을 재학생의 대학 성적과 비교하고 큰 어려움 없이 어떤 고등학교가 '쉬운 학년'인지 알 수 있어 대학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만큼 학생들 간의 편차가 크지 않다고 여긴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일부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이전에 대학에 진학했던 학생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각 고등학교에 대한 자체 내부 '성적 곡선(grading curve)'을 개발한다. 이는 각 학교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통학권을 갖고 있어 입학사정관이 그 지역의 주요 고등학교를 비교적 잘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주요 대학 입학 요건

캐나다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은 △11, 12학년도 성적 △선수과목 △언어능력(영어, 프랑스어)이다.



[그림 1] 캐나다 대학의 일반적인 입학 요건

가. 토론토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의 입학 요건은 지역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다. 대학은 11

학년 및 12학년 점수를 기준으로 모든 필수 12학년(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에 등록한 학생에 한 해 선발한다. 필수 과목에서 12학년 점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11학년 과정에서 해당 점수를 사용한다. 전공에 따라 원하는 추가 요구사항이 있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시험점수를 제공해야 한다.

〈표 1〉 캐나다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토론토 대학교 지원 요건

주	공통 지원 요건
온타리오	온타리오 중등학교 디플로마(OSSD) 영어를 포함한 4U/M 수준의 6개 과목 (영어, 미적분학 및 벡터, 고급 기능, 생물학, 화학, 물리학)
앨버타	- 영어를 포함해 5개의 12학년 과목이 30/31으로 번호가 매겨진 고등학교 졸업장 (영어, 미적분학 및 벡터, 고급 기능, 생물학, 화학, 물리학) - AP(Advanced Placement) 및 국제 바칼로레아(IB) 과정 허용
브리티시 컬럼비아	- English Studies 12 또는 English First Peoples 12를 포함한 6개의 12학년 과목이 포함된 고등학교 졸업장 (영어, 미적분학 및 벡터, 고급 기능, 생물학, 화학, 물리학) - 미적분 전제 조건이 있는 프로그램에는 미적분 12 또는 미적분 AP 필요
국제 바칼로레아	영어를 포함한 완전한 디플로마 (영어, 미적분학 및 벡터, 고급 기능, 생물학, 화학, 물리학)

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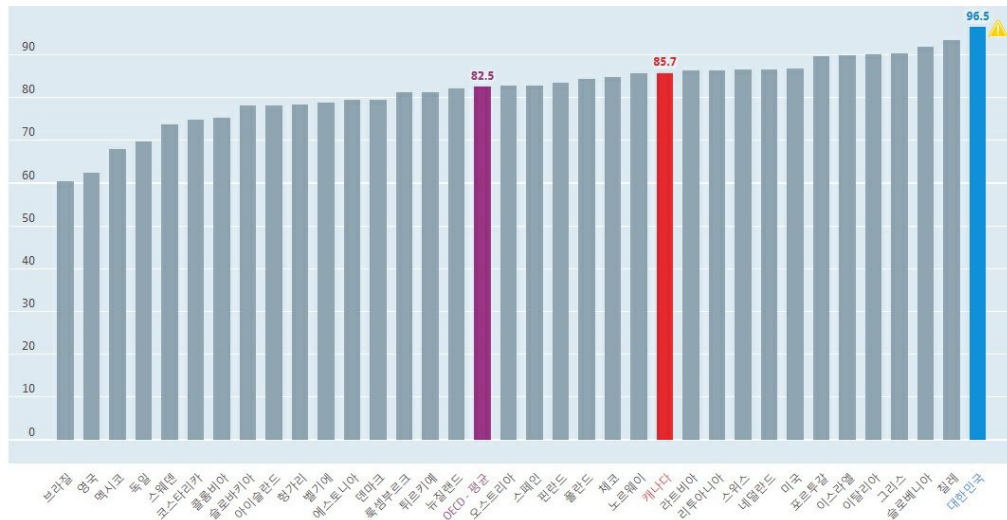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입학하려면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입학 요건과 지원하는 주와 지원하는 학위에 따라 달라지는 학위별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모든 지원자는 입학 전에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11학년 또는 12학년 영어 과목에서 최소 70%를 성취하고, 최소 6개의 학업 또는 비학업 12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님).

〈표 2〉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전공별 요구사항 예시

전공	11학년 요구사항	12학년 요구사항
응용 생물학	모든 영어 예술/영어 원주민, 언어, 화학, 물리학, 예비 미적분학/수학 기초12	영어 연구/영어 원주민, 예비 미적분학, 해부학 및 생리학(생물학), 화학/물리학
미디어 연구	모든 영어 예술/영어 원주민, 언어, 예비 미적분학/수학 기초12, 과학11(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환경과학)/과학12	영어 연구/영어 원주민, 포트폴리오 제출, 예비 미적분학12(강력 권장)
원주민 토지 관리	모든 영어 예술/영어 원주민, 언어, 생명과학(강력 권장), 화학/물리학/지구과학/환경과학, 예비 미적분학	영어 연구/ 영어 원주민

3. 고등학교 졸업 요건

캐나다 대학의 입학은 대부분 고등학교 성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 주별로 다른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2020년 OECD 회원국 고등학교 졸업률 (출처: OECD)

가. 온타리오주

온타리오 중등학교 졸업장(OSSD, The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는 △30학점 이수(필수 18학점, 선택 12학점) △문해력 평가 통과 △최소 2개의 온라인 학습 학점 취득 △40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참여가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최소 8학점을 이수하는 12학년을 제외하고 연간 6학점을 이수한다.

<표 3>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 요건

	내용
필수 학점 (18학점)	- 영어/프랑스어 4학점(학년당 1학점) - 수학 3학점(11학년 또는 12학년에 1학점) - 캐나다 역사 1학점(10학년) - 보건 및 체육교육 1학점 - 진로 연구에서 0.5학점 - 그룹 1, 2, 3 과목 3학점(각 그룹당 1학점) - 과학 2학점 - 예술 1학점 - 캐나다 지리학 1학점(9학년) - 제2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1학점 - 시민권 0.5학점
선택 학점 (12학점)	선택 학점은 개인의 관심사와 목표에 따라 학생이 선택

온타리오 중등학교 문해력 시험(OSSLT)	- 온타리오 중등학교 문해력 시험(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 매년 3월 온타리오주 전역의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9학년 말까지의 주 교과 과정의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읽기 및 쓰기 능력 평가 - 최소 역량 평가로 설계되며 성취도는 '성공' 또는 '실패'로 보고됨 - 문해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중등학교 문해력 과정(OSSLC) 수강
온라인 학습	2020-2021학년도 9학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됨. 최소 2학점 취득 필요
지역 사회 봉사활동	-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최소 40시간의 자기 주도 활동으로 구성됨 9학년 입학 전 여름부터 12학년 말까지 언제든지 시간 축적 가능

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졸업 증명서(Dogwood Diploma)를 얻기 위한 요건으로는 △최소 80학점 이수 △세 가지 졸업 평가 완료가 있다.

〈표 4〉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등학교 졸업 요건

	내용
요구 학점 (52학점)	- 직업 생활 교육 4학점 및 직업 생활 연결 4학점 - 체육 및 건강 교육 10(4학점) • 원주민 중심(4학점) - 과학/사회/수학 10(각 4학점), 과학/사회/수학 11 또는 12(각 4학점) - 언어 10, 11 및 필수 12 (총 12학점) - 예술 교육 10, 11, 12 및 응용 디자인, 기술 10, 11, 12(총 4학점)
선택 학점 (28학점)	학생 선택 과목
졸업 평가 (모두 통과)	10학년 수리력 평가 • 10학년 문해력 평가 • 12학년 문해력 평가

4. 진로 설정

캐나다 고등학교의 학점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선호도, 강점 및 학습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종류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학년의 학생이라도 완전히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은 대학 전공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 상담 교사는 학생과의 진로 상담을 통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조언하고 학생들이 진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12학년 때 좋아하는 대학과 전공에 성공적으로 지원하려면 미리 목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6개의 12학년의 과목 성적이 있는 캐나다 고등학생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캐나다의 대학은 비즈니스,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

학, 인문, 예술 등 6개의 주요 전문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진로를 고민한 학생이 공대나 자연과학 전공을 선택했으나 대학 지원 시 경영학이나 인문계 전공으로 전향을 희망할 경우, 선택한 교과목을 기준으로 전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학 전공이나 다른 교양 또는 예술 과정을 고등학교 과목으로 선택한 경우, 필수 과목을 많이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지원 시 공학 또는 자연과학 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대학 진학 시 11학년과 12학년 성적을 기반으로 선발되지만 9학년과 10학년의 과목 선택과 성적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9학년과 10학년에 수강하는 과목이 11학년과 12학년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학년에서 과학을 삭제하면 10학년 과학을 수강할 수 없다. 또한 모든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인 12학년 영어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11학년 영어를 먼저 이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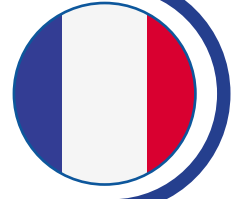
5. 특징

캐나다 대학의 일반적인 입학 요건은 △고등학교 11학년 및 12학년 성적 △전공별 선택 과목(선수과목) △언어능력(영어, 프랑스어)이다. 캐나다에는 수능과 같은 대단위의 표준화된 대학 입학시험이 없어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의 요구에 맞게 선택 과목을 선정하고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은 학부모, 진로 상담 교사와 상담해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하고 교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캐나다의 큰 지리적 규모로 인해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그 결과 내실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 ▶BeMo, <https://zrr.kr/HWH2>
- ▶Brooklyn College, <https://brooklyncollege.ca/news-en-2023-09-03/>
- ▶British Columbia, <https://zrr.kr/SnK2>
- ▶Ontario Association of School Districts International, <https://zrr.kr/nwiG>
- ▶Ottawa-Carleton District School Board, <https://zrr.kr/EhoS>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https://zrr.kr/pqf7>
- ▶University of Toronto, <https://zrr.kr/eWfX>
- ▶WONKHE, <https://wonkhe.com/blogs/the-thirteen-admissions-systems-of-canada/>

프랑스의 대학 입학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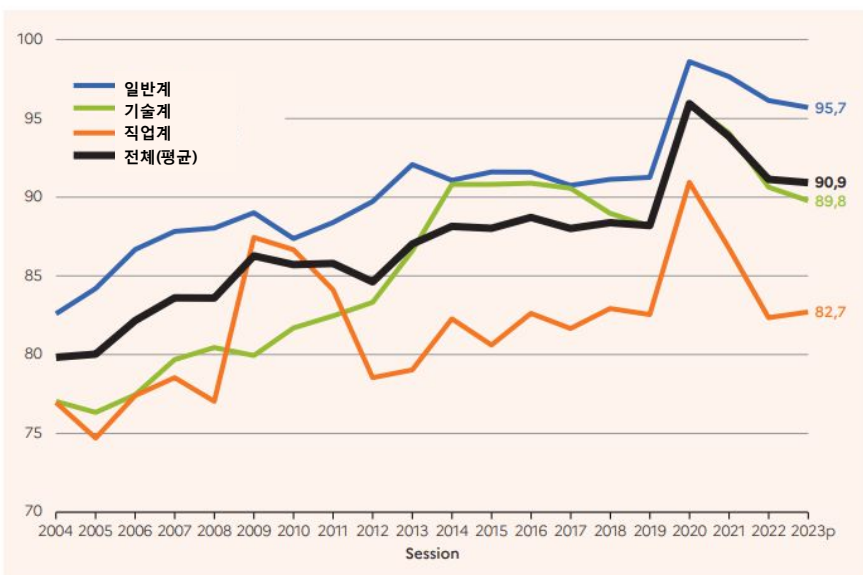


발간위원 : 이한길(포항초등학교 교사)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은 대입 제도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프랑스 대학 입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던 '절대평가제'와 '무작위 추첨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많은 대학과 초, 중등 교육자가 비판하고, 올해 임명되었던 교육부 장관이 한 달 만에 교체되는 상황도 벌어지며 크나큰 진통을 겪는 중이다. 하지만, 개혁 의지는 꺾이지 않고 진행 중인데, 과연 프랑스 대입 제도는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1. 대입 개혁의 초점,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대입제도 개혁의 초점은 바칼로레아에 맞춰졌다. 이유는 첫 번째, 바칼로레아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다. 1936년에는 합격률이 2.7%에 그쳤다. 표에서 보드시피 2004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90.9%까지 올랐다. 절대평가이기에 통과만 하면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합격률이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간 프랑스의 PISA 결과는 하락 추세이다. 기존 바칼로레아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교육통계사이트(DEPP)에서 가져온 계열별 바칼로레아 합격률 추이이다.

그래프에서 보드시피 2004년 이후 2023년(은 추정치)까지 합격률은 꾸준히 올라갔고, 일반계 경우 95.7%까지 올라가 있다. 물론, 2020~2021년 수치는 예외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때는 세계적 팬데믹이 있었고, 학생 건강을 최우선에 둔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부분 학생은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대학 진학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합격률은 꾸준히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p : les données 2023 sont provisoires.

Champ : France métropolitaine + DROM hors Mayotte jusqu'en 2011, y compris Mayotte à partir de 2012.

Source : DEPP, Systèmes d'information Cyclades, Ocean ; ministère chargé de l'agriculture.

[그림 1]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바칼로레아 합격률 추이 (출처: Le baccalauréat 2023 - Session de juin)

둘째,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 교육과정마다 계열 구분이 있었고, 각 계열 별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그럼에도 대학 입학 자격은 계열을 따지지 않고 주어졌던 것이다. 자신이 선택했던 학위 계열과 다른 학부에 진학할 수 있다. 이 점은 대학 중퇴나 낙제의 원인이 되고, 또는 엘리트 과정으로 인식되는 일부 계열에 몰리게 된다.

셋째, 바칼로레아 시험 과목 수가 너무 많고, 응시 시기가 고교 3학년 말에 집중되어 수험생에게 과도한 시험 부담을 주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생 개인의 적성 개발, 대학 교육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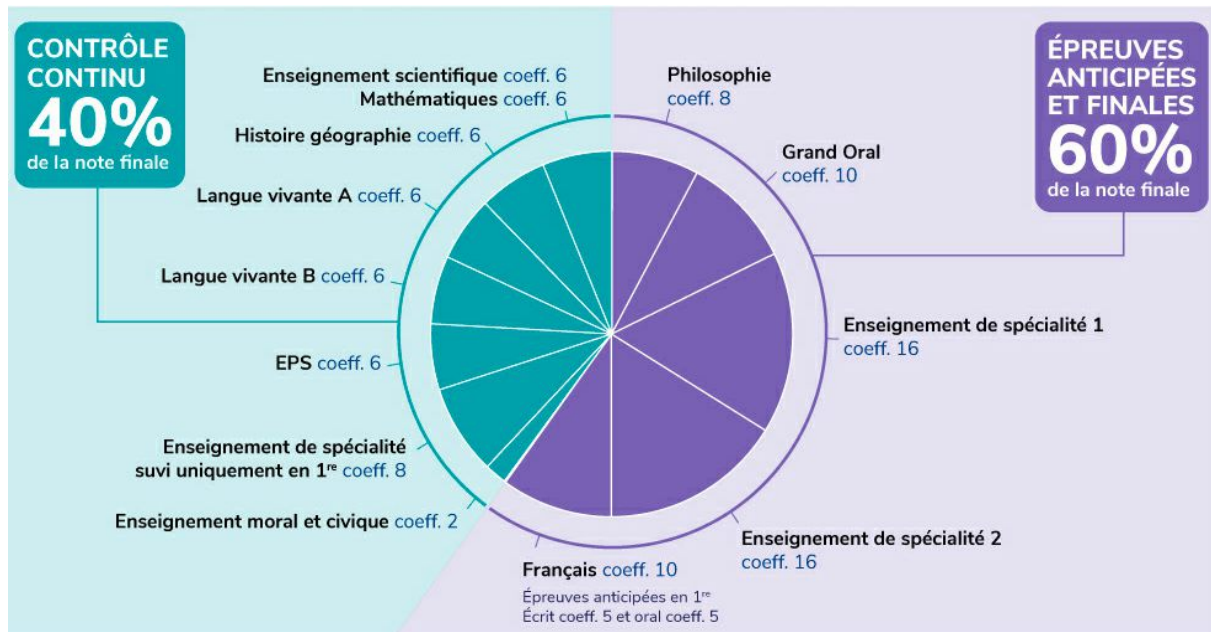
넷째,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합격자(진학 희망자) 수와 대학의 학생 수용 능력 간 불균형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입학 자격 취득 후 진학 등록 제도(APB: Admission Post Bac)'를 실시하였으나, '무작위 추첨'으로 진로에 따라 배분하는 시스템이라 고등학교 성적과 바칼로레아 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 의욕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2. 개혁안을 반영한 대입 제도 변화

가. 2018년 개혁 이후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 개혁은 개정된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개혁안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구성된다. 첫째, 문학(L), 과학(S), 경제·사회(ES) 같은 계열을 일반과정에서 폐지한다. 공통과목 외 1학년 전공에서 3과목을 선택하고, 최종 학년에 2과목을 선택한다. 둘째, 시험 과목을 재검토하여, 계열에 따라 10개 과목 내지 15개였던 최종 시험 과목을 4개 과목으로 통일한다. 4개 과목은 전공 2개, 철학 및 구술시험(Grand Oral)이다. 셋째, 구술시험은 학생이 10분간 발표 후 시험관의 질문에 답한다. 개혁의 핵심은 필기시험 비중을 낮추고, 구술시험과 고등학교 성적에 비중을 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도의 개정으로 첫째, 계열 선택이 아닌 전공과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학습과 진로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습 내용이 연계되어 대학 중퇴와 낙제가 줄어들게 되었다. 셋째, 시험 과목이 축소되고 필기 과목의 비중이 감소하여 시험공부 이외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바칼로레아 종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계, 기술계, 전문계로 재편되었다. 바칼로레아의 점수는 40%의 내신 성적(contrôle continu)과 60%의 최종시험(épreuves terminales)의 성적을 반영해 산출된다. 국가 수준의 대입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은 바칼로레아의 최종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바칼로레아에서 40%를 차지하는 내신 성적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교과 시험성적의 평균을 산출해 반영한다.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최종시험의 교과는 프랑스어(필기 및 구술), 선택심화교과(필기, 실기 또는 구술), 철학(필기), 발표(구술)로, 프랑스어 시험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치르며, 나머지는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치른다.



[그림2] 바칼로레아 최종점수 계산방법 (출처: <https://www.cours-thales.fr/preparation-bac/reforme-bac>)

나. 새로운 대학 지원자 관리 체제, 파르꾸르쥘(Parcoursup)

바칼로레아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기존의 ‘입학 자격 취득 후 진학 등록 제도(APB)’가 아닌 새로운 지원 관리 체제인 파르꾸르쥘(Parcoursup)을 도입했다. 파르꾸르쥘은 APB와 달리 우선 순위 없이 10개까지 대학과 학부를 선택하고, 자기소개서와 함께 등록하는 제도이다. 입학 희망자가 많은 대학은 출신 학군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학은 필요로 하는 적성·능력을 명시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보충수업 등 수준 개선을 위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고등학교 최종 학년에는 진로 지도가 강화되고 각 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등학교의 의견이 학생이 등록한 대학에 송부된다. 이는 APB제도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개선되고 무조건 학생을 받아들임에 따른 정원 초과나 종퇴와 유급을 억제할 수 있고, 고등학교 성적이 반영될 수 있어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 지원자는 파르꾸르쥘 사이트에 이력서, 추천서, 성적표, 입학계획서 등을 등록하고, 고교 3학년 5월 초에 대학이 이 자료들을 근거로 1차 입학 후보자들을 선정하고, 바칼로레아 점수가 나온 후에 최종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바칼로레아 제도와 비교할 때 프랑스 대입 제도에 없었던 대학의 학생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다.

응시자의 지원서 평가는 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평가 기준은 교육부에서 규정하고, 대학은 입학지원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한다. 교육부에서는 응시자의 지원서 검토 시 대학 측에서 적용해야 하는 ‘입학지원서 검토 일반 기준(Critères généraux d'examen des vœux)’을 제시한다. 이는 파르꾸르쥘 절차 운영상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응시자와 가족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속한다. 해당 일반 기준의 적용은 의무 사항이며, 이는 교육법 D612-1-5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기준’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다.

<표 1> 교육부 입학지원서 검토 기준, (출처: 프랑스의 대학 입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A. 학업성적 (정량평가)	- 수학 성적 - 고등학교 3학년 및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성적 - 영어 수준 - 바칼로레아 프랑스어 성적과 심화교과 성적 - 평점 - 과학교과 성적 - 평균 추이 - 졸업 증명서
B. 학업 및 수학 역량 (학업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	- 공부 방식 - 구술 능력 - 철자 - 과학적 방법론 획득 - 외국어 작문 능력
C. 태도 (학업 이외 역량)	- 자율성 - 참여도 - 노력 - 집중력 - 계획능력 - 협동능력 - 개방적 사고 - 지적 호기심
D. 동기, 전공계열에 대한 지식, 학업 계획의 일관성	- 동기 -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능력 - 전공 과정의 요구사항, 내용 및 진로에 관한 지식 - 학업 계획의 (전공과정의 내용과 진로에 비추어) 일관성 - 전공 과정에 대한 관심
E. 참여, 활동, 관심사, 방과후 또는 학업외 활동	- 시민사회 참여 - 예술, 과학적 방법론, 농업 및 자연에 대한 관심 - 사회문제에 대한 호기심 - 스포츠클럽 활동 - 승마 자격(스포츠 전공일 경우에 요구될 수 있음)

교육부에서 발간한 지침서 부록에는 위와 같이 정해진 기준은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이며, 이외 모호한 기준은 평가에 작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대학 측에서는 전공계열별로 응시자 지원서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준별 중요도 또한 표시해야 한다. 기준별 중요도는 필수, 매우 중요, 중요, 추가 고려 사항 네 단계로 구분된다.

신입생을 받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은 전공별로 ‘입학지원서 검토위원회(Commission d’examen des vœux)’를 구성하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다. 해당 위원회 역할은 아래와 같다. 하나, 입학 지원 방법과 지원서 검토 기준(교육부 일반기준)에 따라 응시자 지원서를 모두 검토하도록 한다. 둘, 이때 입학지원서 검토위원회에서는 많은 수의 지원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결정 지원 도구(Outil d’aide à la Décision)’를 사용하거나 대학 내 자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입학지원서 검토위원회(CEV)에서 정하고, 파르꾸르쉴에 공개된 지원서 검토 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지원 서류를 일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된 프로그램이다. 대학 내 자체 도구를 운용한다면 지원서 1차 평가에 사용된 기준을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셋, 지원서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자의 순위를 매긴 후 총장에게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통

지하여 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넷, 검토 절차 이후 검토 내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며, 이후 학교 측에서 홈페이지와 파르꾸르쉽 플랫폼에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지원서를 평가한 기준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 지원 도구(OAD)의 알고리즘에 의한 서류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모든 검토 과정은 보고서 형식 기록(Procès-verbal)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서류 검토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 서류를 평가, 입학지원서 검토 위원회 회의 등은 모두 기록된다. 응시자 서류평가 보고서의 경우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 내용에 대한 기밀을 보장하는 선에서 공개가 가능하다. 회의 보고서는 누구나 요청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각 대학의 전공계열에서 지원자 서류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결과에 따라 파르꾸르쉽 플랫폼을 통해 응시자에게 합격 통지가 전달된다. 응시자는 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합격한 학교 중 한 곳에 제한된 시간 내 등록해야 한다. 대학의 전공계열에서는 모집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때 전체 합격자의 국가장학금(교육복지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각 교육 지역별 출신 지역 학생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처리하고자 파르꾸르쉽에서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이 알고리즘은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다.

3. 제도 개혁을 스스로 흔드는 정부, 여기에 대한 비판

올해 2월 8일(프랑스 현지 시간) 대학 입학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파르꾸르쉽의 허점이 드러났다. 아멜리 우데아-카스테라(Amélie Oudéa-Castéra) 전 교육부장관이 자녀들을 파리 소재 사립고등학교에 보냈는데, 프랑스 언론 미디어파르(Mediapart)가 확인한 바 장관이 파르꾸르쉽 체제를 우회하여 그랑제꼴 준비반(classes prépas)에 자녀가 들어갈 수 있게 하려 선택한 방법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의 예외적 체제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길이다. 파르꾸르쉽을 도입하면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한 정부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를 만들 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예견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나왔다. 교육부 감사 에릭 니콜레(Eric Nicolle)는 “파르꾸르쉽은 ‘사회적 분류 도구(Outil de tri social)’로 설계되었다.”고 비판했다. 개선된 교육 체계가 겉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을 “사회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렬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기회 평등을 진정 원한다면 공공, 무료 고등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기회 평등은 고등 교육 예산을 감축하지 말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한다. 대학 및 고등 교육, 대학 졸업 후 교육의 민영화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4. 시사점

프랑스 대입 제도는 변화 중이다. 68혁명 이후 정착된 현대적 바칼로레아는 바뀐 내용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지향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지만, 프랑스만의 국가적 가치를 시대에 맞게 실현하려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중에도 눈에 띄는 것은 교육 체제, 그중에서도 고등교육체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 제도에 관하여 사회적 효율성과 효과 측면에서 꾸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안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적 평등에 기여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각 언론에서 꾸준히 실어주고 있다. 권력가들의 어이없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하지만, 그런 모습은 사실 개혁 이전에도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달라진 입시 제도를 지켜보며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는 이들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다. 시민 혁명으로 전 세계에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던 프랑스의 저력이 입시제도 개혁에서도 제대로 드러날지 지켜볼 일이다.

【참고 자료】

- ▶ 시험대에 오른 '마크롱표 대입 개혁',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3>
- ▶ 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프랑스 대입 온라인 플랫폼, 파르쿠르슈(Parcoursup), https://placedeparis.com/community/bbs/board.php?bo_table=news_issue&wr_id=1972
-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3)교육제도 개혁,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61
- ▶ 프랑스의 국가수준 대입시험 현황과 개편 동향,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4&nTbBoardArticleSeq=835848>
- ▶ 프랑스의 대학 입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10091&nTbCategorySeq=&pageIndex=1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37674&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
- ▶ Comment sont examinées les candidatures ?, <https://www.parcoursup.gouv.fr/candidater-sur-parcoursup/comment-sont-examinees-les-candidatures-1357>
- ▶ Le baccalauréat 2023 - Session de juin, <https://www.education.gouv.fr/le-baccalaureat-2023-session-de-juin-378728>
- ▶ Parcoursup, c'est quoi ?, <https://www.parcoursup.gouv.fr/decouvrir-parcoursup/parcoursup-c-est-quoi-1061>

호주의 대학 입학 제도



발간위원 : 박진아(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

1. 호주의 대학 입학 제도

(1) 주별 입학 제도

호주에서는 주마다 각기 다른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는 북부 준주 교육 훈련 수료 시험(Northern Territory Certific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NTCET),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호주 학업 적성 검사(Australia Scholastic Aptitude Test, ASAT), 호주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호주 수도 준주 12학년 증명서(Australia Capital Territory Year 12 Certificate), 빅토리아(Victoria) 주는 빅토리아 교육 수료 시험(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태즈메이니아(Tasmania) 주는 태즈메이니아 교육 수료 시험(Tasmanian Certificate of Education), 남호주(South Australia)주는 남호주 교육 수료 시험(South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 서호주 (Western Australia) 주는 고등교육 입학 시험(Tertiary Entrance Examination),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주는 고등학교 수료 시험(Higher School Certificate, HSC)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각 주의 학생들의 시험 결과는 호주 연방 대학 입시 센터(University Admissions Centre, UAC)가 표준화하여 대학 입학 등급 지수(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 ATAR)로 변환한다. ATAR는 호주 전역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Scaling)을 거쳐 산출하는 비교 지수이며 이 ATAR이 각 대학 입학에 활용된다. 이 중에서 호주 3대 대학 입시 제도로 꼽히는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 대학 입학 제도인 HSC를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 고등학교 수료 시험(HSC)

▶개요: HSC란 NSW 주에서 11학년과 12학년 동안 HSC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얻게 되는 고교 졸업 증서이자 대입 수능 시험이다. HSC 점수는 호주 대학 입학 등급 지수(ATAR)로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호주 또는 해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한다.

▶HSC의 유형: HSC는 A 유형(category A)과 B 유형(category B)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A 유형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반 과정이고, B 유형은 호주국립훈련청(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이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과정이다. 2025년부터는 두 가지 사항이 변경된다. 첫번째는 단위 학교가 HSC 시험과 관련하여 개설하는 모든 과목이 ATAR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B 유형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B 유형에서 최대 2과목만 수강할 수 있었기에 학생들은 ATAR 산출에 더 많은 과정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수강 과목: HSC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포함하여 최소 12학점의 예비 과정(preliminary course)과 10학점의 HSC 과정(HSC course)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 영어 과정에는 영어학, 영어 기본 과정, 영어 심화 과정, 추가 언어 또는 방언으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이 있다. 대부분의 HSC 과목은 2학점이고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선택 과목(수학, 생물학, 경영학), 언어(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직업 교육 및 훈련(VET) 과정(호텔경영, 건설 및 비즈니스 서비스)이다.

▶평가 방식: 과목별 평가 결과는 HSC 시험 성적과 학교 내신 성적을 동일 비율로 포함한다. 학교 내신 시험(school-based assessment)은 외부 시험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술과 지식을 측정한다. 학생들은 과목마다 논술, 현장 연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평가를 수행한다. 각 학교가 대부분의 과목에서 각 학생이 얻은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뉴사우스웨일즈 교육표준원(NSW Education Standards Authority, NESA)가 조정 점수를 산출하여 여러 학교의 각 과목 점수를 공정하게 비교한다. HSC 시험은 서술형 시험, 말하기와 듣기 시험, 외부 평가를 위해 제출한 과제, 실기 시험을 포함한다. 각 학생의 시험 결과는 과정별 성취 기준에 비추어 서술형으로 보고된다.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해당 학생이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모든 HSC 이수 학생은 HSC 최소 기준 읽기, 쓰기, 수리 영역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최소한의 읽고 쓰기 및 수리력 기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은 온라인 방식이고 45분간 선택형 시험(읽기, 수리력)과 그림이나 글로 된 힌트를 바탕으로 한 짧은 글짓기를 한다. 10~12학년동안 HSC 최소 표준 온라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매년 4번 있으며 HSC 과정 시작 후 최대 5년 안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일정과 성적 산출: 학교 내신 성적에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시험인 HSC 모의고사(trial test)는 7월에 치른다. 각 학교가 시험을 출제하지만 모든 형식과 환경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내신 성적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HSC 본고사는 10월 중순부터 4주간 실시한다.

HSC 시험 성적은 11, 12학년 내신 성적과 50:50의 비율로 합쳐쳐 ATAR로 산출된다. ATAR의 최고 등급은 99.95이며 0.05 단위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ATAR 등급 99.95은 전체 수험생 중 상위 0.05%라는 것을 의미한다. ATAR 등급은 학생의 희망 학과 입학 평가에서 절대적 기준이 된다. 12월 중순이 되면 시험 결과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 사이트,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학생들은 대학 입학 센터(Universities Admissions Centre)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적과 선호도에 따라 5가지 학과에 지원한다.

HSC 시험에서 높은 성취도를 기록한 학생들이 받게 되는 우수 자격은 네 종류가 있다. HSC 과정 또는 선택 시험에서 1위를 받은 경우에는 과정 내 1위(First in course), 10개 이상의 HSC 과정에서 결과가 가장 높은 등급이면 만능 성취자(All-round achievers), 가장 높은 등급의 결과를 기준으로 과정에서 1위인 경우 최고 성취자(Top achievers), 하나 이상의 과정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얻으면 뛰어난 성취자(Distinguished achievers)로 인정받는다.

【참고 자료】

- ▶ NSW Educations Standards Authority, <https://www.educationstandards.nsw.edu.au/wps/portal/nesa/11-12/hsc/hsc-student-guide/student-guide>
- ▶ NSW Government, <https://www.nsw.gov.au/education-and-training/hsc>

뉴질랜드의 대학 입학 제도



발간위원 : 박진아(포항제철고등학교 교사)

2. 뉴질랜드의 대학 입학 제도

(1) 개요

뉴질랜드에는 고교 학력 취득과 대학입시를 위한 세 가지 시험이 있다. 뉴질랜드 학업 성취도 국가자격증(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 NCEA), 캠브리지 국제시험(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B 과정(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NCEA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2) 학업성취도 국가자격증(NCEA)

▶개요: 11학년부터 13학년 학생들이 취득하는 주요한 중등학교 국가 자격이다. 평가는 내부 평가(학교에서 실시)와 외부 평가(뉴질랜드 학력 평가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에서 실시)로 나누어진다. NCEA는 뉴질랜드뿐 아니라 호주, 영미권 국가, 유럽 국가 등 많은 나라에서 고교 졸업 증명, 성적 증명 기초 자료, 대학 입학 성적으로 인정된다.

▶도입 배경: NCEA 이전의 대입 제도는 개별 학생의 특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험을 잘 치는 학생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2년에 NCEA 제도를 도입하였다. NCEA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성취기준을 넘는다고 인정되면 해당 학점을 취득한다. 한 번의 시험 결과보다는 학업 능력과 성취도를 폭넓게 평가하고자 한다.

▶수강 과목: 일반적으로 11학년에 레벨 1, 12학년에 레벨 2를 공부하고 13학년에 레

벨 3으로 진급한다. 레벨 1의 모든 학생은 영어와 수학에서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대부분 5~6과목을 수강하는데 영어, 수학, 과학, 이외 2~3개 과목을 선택한다. 레벨 2에서는 최대 6개의 레벨 2 과목을 수강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공이나 취업 분야와 관련 있는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레벨 3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전공할 분야와 연관 있는 과목 최대 5개를 선택하고 필수 과목은 없다.

반드시 레벨 1,2,3 순서대로 수강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레벨을 혼합하여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과목을 레벨 2로 수강하고 일부 과목은 레벨 1으로 시작하거나 잘하는 과목은 레벨 3로 공부할 수 있다. 레벨 2와 3에서 선택한 과목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추후 진로 선택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대학 입학에 사용할 수 있는 과목 중 3개 이상(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과목과 영어)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평가 방식: 평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내부 평가와 뉴질랜드 학력 평가청(NZQA)가 주관하는 외부 평가로 이루어진다. 내부 평가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학생의 역량과 지식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연설하기, 역사 주제 탐구, 과학 실험하기 등이 있다. 외부 평가는 뉴질랜드 학력 평가청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독립적인 평가이며,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시험을 치는 일제고사이다.

모든 과목은 지식과 기술의 다양한 영역을 설명하는 세부평가항목(standard)에 따라 평가한다. 학교는 어떤 과목을 제공할지, 해당 과목에 대해 어떤 기준을 평가할지를 결정한다. 각 세부평가항목을 달성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점(credit)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Level 1 영어 과목에는 세부평가항목 91924~91927번이 있고 각 표준은 5학점이다. NCEA를 취득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은 문해력(literacy) 10학점, 수리력(numeracy) 10학점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세부평가항목에는 성취 기준(achievement standard), 단위 기준(unit standard), 역량 기준(skill standard)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성취 기준은 내부 또는 외부 평가로 측정하고 단위 표준과 기술 표준은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한다. 성취 기준은 불합격(Not Achieved, N), 합격(Achieved, A), 우수(Merit, M), 탁월(Excellence, E)의 4단계로 구분되는 절대 평가이다. 일부 단위 기준과 역량 기준은 N, A, M, E 4단계 또는 N, A 2단계로 평가한다.

▶ 시험 일정과 성적 산출: NCEA 기말고사는 11월부터 시작하고 결과는 1월 중순에 발표되며, 뉴질랜드 평가당국(NZQA) 웹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지를 볼 수 있다. NCEA는 OECD가 선도적이라고 인정하는 대입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대학 진학에도 활용된다. 호주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 승인 과목을 레벨 3로 수강하고 최대한 많은 탁월(E), 우수(M) 성취기준을 얻어야 한다.

학생이 지속적으로 합격(A) 이상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면 자격 수료증(certificate endorsement)이나 개별 과목 수료증(course endorsement)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수료증은 교과목 전반에 걸쳐 높은 성취도를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예를 들어 레벨 1에서 성취기준 탁월(E) 5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NCEA 레벨 1 인증서는 Excellence로 표시된다. 반면 개별 과목 수료증은 특정 교과목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한 과목에서 성취기준 합격(A), 우수(M), 또는 탁월(E)로 총 14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내부 평가에서 최소 3학점, 외부 평가에서 최소 3학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오리어 과목에서 탁월(E)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14개의 우수(E) 학점이 필요하며 최소 3학점은 내부 평가에서, 3학점은 외부 평가인 기말 시험에서 취득해야 한다.

3. 특징

호주는 각 주마다 독자적인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연방 대학 입시 센터(UAC)가 모든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수합하여 표준화 작업을 거친 후 대학 입학 등급 지수(ATAR)를 산출한다.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는 고등 교육 자격증(HSC)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HSC를 획득하기 원하는 학생은 영어 과목을 포함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최소 기준 시험(문해력, 수리력)을 응시해야 한다. 과목별 성적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내부 평가와 HSC 일제식 평가를 동일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뉴질랜드의 대입 제도는 3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학업성취도 국가자격증(NCEA)을 채택하고 있다. 11학년부턴 13학년동안 레벨 1~3을 공부하며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게 교과목별 레벨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이다. NCEA를 취득하기 원하는 학생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각 10학점 이상 공부해야 한다. 평가로는 교내 평가와 뉴질랜드 학력 관리청(NZQA)이 주관하는 일제식 평가가 있다.

【참고 자료】

- ▶ New Zealand Education, <https://www.studywithnewzealand.govt.nz/ko/study-options/schools/school-system-and-qualifications>
- ▶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https://www2.nzqa.govt.nz/about-us/publications/nzqa-resources-and-videos/#e9227_heading1